

Emmanuel

임마누엘 [사랑호] Vol.14, No.1, Apr 30, 2017





말씀의 창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7)

“DEAR FRIENDS, LET US LOVE ONE ANOTHER, FOR LOVE COMES FROM GOD.
 EVERYONE WHO LOVES HAS BEEN BORN OF GOD AND KNOWS GOD.”
 (1 JOHN 4:7)



Contents

Vol.14, No.1, Apr. 30, 2017

I. 행전시리즈

- 02 말씀의 창 - 요한일서 4: 7
- 04 담임 목사 칼럼 - 하나님의 사랑
- 06 믿음의 선진들 - 일사각오, 주기철 목사
- 08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인도네시아에서 온 기도편지
- 10 단기 선교 보고서 - 호피 인디언 건축 선교 보고서
- 12 양화진 선교사 이야기 - 프랭클린 올링거
- 14 임마누엘 평원 소개 - 산호세 평원
- 16 초등부 제자 훈련 - 5학년들의 제자바라기

II. 실만한 물가

- 20 전도팀 - 학자들이 말하는 전도의 정의
- 22 임마누엘 레시피 - 삼색 소보로 덮밥과 마라황과
- 24 크리스천 명언 - G.K 체스터튼
- 25 시가 있는 풍경 -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 26 세계 속의 교회 탐방기 - Times Square Church에서의 특별한 예배
- 28 성경 속의 도량형 - 성경 속의 길이와 무게
- 30 성경 속의 절기와 풍습 - 최후의 만찬과 유월절 식사
- 32 임마누엘 카툰
- 34 찬양팀 - 익숙함을 벗어나 유일한 청중되시는 분을 생각하십시오
- 36 나를 변화시킨 한 권의 책 - '삶으로 배우는 것만 남는다'를 읽고
- 38 그림 이야기 -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 40 올바른 기독교 용어
- 42 크리스천의 올바른 자녀 양육 - 물 반 고기 반
- 44 하하 호호 웃어요

III. 임마누엘 사람들

- 46 나의 사랑하는 책 -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천사도 흠모하겠네
- 48 부활의 증인 - 신앙의 사춘기
- 50 전도 간증 -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
- 52 네팔 단기 선교 간증 - 네팔 땅에 은혜의 단비가
- 54 인도 단기 선교 간증 - 은혜의 순간들
- 56 성경 일독 간증 - 행복했던 성경 일독 여행
- 58 나의 노래 - 아버지 품 안에서 난
- 60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 62 푸른 목장 - 목장에서 만드는 신앙의 연결고리
- 64 임마누엘 한국 학교 글 잔치 - 날아가는 새
- 66 부서 소개 - 생명 공동체, 비전 청년부
- 68 팀 소개 - 비전 청년부 증보팀
- 70 건강 칼럼 - 우슬초
- 72 크리스천 영화방 - The Drop Box
- 74 새가족 소개 - 정경진, 김미동 가족

하나님의 사랑

지난 2월에 한국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하며 어머니를 하루 잠깐 뵈고 왔습니다. 한국으로 출발하기 며칠 전에 전화를 드려서 “어머니, 이제 어머니 뵈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말씀을 드렸더니, 뜻밖에 어머니는 “얘야, 실은 너를 만나는 시간보다 너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 좋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저를 만나면 곧 다시 떠나보내야 하니까 차라리 저를 볼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더 편안하고 좋으신 것 같습니다.

갈 때마다 용돈을 조금 드리면 그것을 본인을 위해 쓰지 않고 아꼈다가 제가 입을 옷을 세일할 때 사 두십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셔서 “어머니, 저 옷 많아요. 제 옷 사지 말고 어머니를 위해 쓰세요” 하였더니, 어머니께서 정색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너를 위해 옷을 사놓고 수시로 바라보면서 네가 그 옷을 입고 있을 모습을 생각만 해도 내가 얼마나 좋은지 아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럼 사세요. 그런데 싼 것으로 사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아버지께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식을 여럿 두었는데, 그중에 막내가 피부병이 생기고 점점 심해지다가 나중에 문둥병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논 끝에 결국 막내아들을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소록도로 보내기로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어린 자식을, 그것도 건강한 자식도 아니고 나병에 걸린 자식을 도저히 혼자 두고 떠나올 수 없을 것 같아, 자식을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몇 번을 돌을 들었다가 놓곤 하며, 소록도로 들어가는 배편이 있는 곳까지 갔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라 싶어, 어린 아들을 잡고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너랑 나랑 같이 죽자고. 그런데 어린 아들이 아버지를 물으로 밀쳐내며, “아버지, 나만 죽으면 되지 왜 아버지까지 죽어야 해요” 하며 아버지를 뿌리치고 자기 혼자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려 해서, 결국은 아들을 데리고 다시 나왔답니다.



GOD IS LOVE

문둥병 걸린 어린 자식을 소록도에 남겨놓고 혼자 떠나왔어도 무심한 세월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다른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덧 노인이 된 아버지께 어느 날 편지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바로 소록도에 남겨두고 온 막내의 편지였습니다. 내려와서 함께 살자는 막내 내외의 초청편지였습니다. 제대로 다 키워주고 공부시켜서 출가시키고 재산까지 나누어준 자식들은 자기를 멀리하고 불편해하는데, 버리고 온 자식이 함께 살자고 하니 너무 고맙기도 하고 너무나 미안하기도 해서 통곡을 했다는, 그러나 결국은 내려가서 막내 내외와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랑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진한 사랑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그의 젖먹는 아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사 49:15).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에서 '이처럼'의 크기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는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강렬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데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어떤 권세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어떤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능히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롬 8:38-39). 여러분은 이처럼 우리 하나하나를 사랑하시는 이분,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요? 우리도 천상천하에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마 6:9)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신 6:4-5) 사랑합시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마 22:37-38)이며, 이것이 인간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본분이요 우리의 도리입니다.

글 손원배 담임 목사

일사각오

一死覺悟

주기철 목사 (1897~1944)



주기철 목사는 1897년 11월 25일 경상남도 창원군 웅천면 북부리(현재 진해시 웅천 1동)에서 주현성씨의 4남 3녀 중 넷째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어린 시절 그의 말형 주기원이 목회했던, 웅천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소년 목사’라는 칭호를 듣기도 했다.

개통학교 7년 과정을 마칠 무렵, 그는 당시 부산에서 우연히 춘원 이광수 애국강연을 듣고 감동하여 춘원이 교장 대리로 있던 평북 정주의 오산 학교에 진학하기로 한다. 오산학교에 진학한 그는 그곳에서 민족 지도자인 이승훈을 비롯한 조만식, 서춘선생 등을 만나 철저한 민족교육과 함께 신앙교육을 받았다. 그 후 연희전문학교 상과에 진학했지만 입학한 지 몇 달도 채 안 돼 지병인 안질이 심해져 낙향했다. 그는 웅천교회에서 집사로 봉사하면서 동시에 교남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야학과 청년운동에도 정열을 쏟았다.

주기철 목사는 1920년 마산 문창교회에서 열린 김익두 목사의 부흥회에 참석해 뜨거운 성령체험을 한 뒤 목사가 되기로 결심, 22년 3월 평양장로회 신학교에 입학했다. 1925년 12월 신학교 졸업과 함께 경남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부산초량교회 위임 목사로 부임했다. 당시 그는 출신도 별로 나뉘어 있던 기숙사 제도의 맹점을 학교 당국에 바로잡도록 건의, 혼합방식을 채택하도록 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내기도 했다. 신학교 재학시절 양산읍 교회 전도사로 시무한 그는 1925년 12월 신학교 졸업과 함께 경남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부산초량교회 위임 목사로 부임했다. 첫 부임지인 초량교회에서 그는 헌신적이고도 정열적으로 목회활동을 한다.

그는 1936년 마산 문창교회에 이어 평양 산정현 교회에 부임해 갔는데 이즈음 일제는 신사참배라는 무기로 한국교회의 목을 죄어오기 시작했다. 일제는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교인들을 모조리 구속하고 고문하는 잔악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당시 그는 신사참배가 기독교 교리상 어긋난다며 ‘신사참배반대 결의안’을 경남노회에 제출, 정식 가결을 받아 내기도 했다. 대부분 목회자가 무기력하게 신사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주 목사와 그와 뜻을 같이하는 일부 목회자들은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본군의 총칼 앞에 당당히 맞섰다.

이로 인해 주 목사는 1938년부터 1944년 마지막 순교를 할 때까지 모두 5차례 총 5년 4개월간의 투옥생활을 하게 된다. 그는 옥중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갖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내 신앙적 변심을 하지 않았다. 7년 동안 구속과 석방을 거듭하며 안질, 폐병, 심장병 등이 악화해 폐인이 되어갔지만, 감옥에선 언제나 평화로운 얼굴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감사찬양을 했다. 다섯 번째로 구속돼 교도소에 갇히기 직전 자택에서 늙은 어머니와 처자, 20여 명의 평양 산정현 교회 교인들이 모인 가운데 그는 생애 마지막 설교를 남긴다. “우리 주님 날 위해 십자가 고초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체하리까. 오직 일사 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러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1944년 4월 21일 금요일 밤 9시, 숭한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그의 몸은 평양교도소의 한 귀퉁이에서 그날 밤 9시 30분 49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내 여호와 하나님이며 나를 붙잡으소서” 하시고 웃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자료 출처: [HTTP://DONGTANMS.KR](http://dongtanms.kr) & [KCM.CO.KR](http://kcm.co.kr)

사진 출처: [HTTP://WWW.MPVA.GO.KR/NARASARANG/MONTH_HERO_VIEW.ASP?ID=322&IPP=12](http://www.mpva.go.kr/narasarang/month_hero_view.asp?id=322&ipp=12)

편집부 정리

학생들의 신사참배



초량교회





인도네시아에서 온 기도편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사 43:19)

살롬! 선교 동역자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실 새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열어 주신 2017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인도네시아 상황

인도네시아는 작년 후반부부터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온건한 이슬람’과 ‘민주주의 국가’라는 정체성을 포기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현직 조코위 대통령과 아후 자카르타 주지사가 주도해 온 반부패 정책에 대한 불만세력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과 기독교인 아후 자카르타 주지사는 아주 오랫동안 부패에 빠져 있는 인도네시아를 투명하고 청렴하게 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반대 세력에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강경 무슬림 단체인 이슬람수호전선(FPI)은 작년 10월부터 자카르타 주지사 기독교인 아후씨가 코란 구절을 인용하여 신성모독죄를 했다고 대규모 시위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2월 15일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매우 긴장된 상태라 이 때문에 무슬림 개인 전도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주위도 긴장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한 어떤 활동도 무슬림들이 공격적으로 대하고 있지만, 이 선거 상황들이 지나가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ANDREAS(안드레아스) 가정교회 예배 인도와 성찬식

인도네시아 수도권 3천 2백만 인구에게 복음을 듣게 하려고 지역에 있는 작은 가정교회들을 훈련시켜 그들을 통해 복음이 확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부 자카르타 안드레아스 교회를 이끌고 있는 형제는 무슬림 배경을 가진 형제로 20여 명의 형제자매들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12월 4일 이곳에서 무슬림 전도에 대해 도전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교회는 일반 가옥을 고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위는 모두 무슬림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에서의 모임은 일반 가정에서 모이고, 모임이 커지면 일반 가옥을 구입하거나 세를 얻어 모임 장소로 고쳐 사용합니다. 교회라고 하면 아주 민감해서 주위에는 기도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주위의 무슬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교회로 허가받은 건물만 교회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이나 교회 허가가 거의 불가능한 인도네시아 도시 상황에서는 가정에서 모여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모이면서 좀 더 인원이 많아지면 가옥을 고쳐 예배 장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교회와 기도처는 무슬림들이 느끼는 정도가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지만, 기도처는 덜 민감합니다.



동부 자카르타 목회자 가정교회 훈련

12월 14일 동부 자카르타 목회자 가정교회 훈련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인도네시아 수도권을 10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첫 지역으로 동부 자카르타 지역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부 자카르타 지역은 320만 명으로 구성된 도시로 일반 서민들이 많이 살고 무슬림들이 대다수인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자유롭게 교회를 세우거나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주하여 온 기독교인들이 오래전에 허가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상가 건물을 이용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무슬림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는 주위의 기독교인들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가정교회 전도 훈련을 매달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 무슬림 전도에 대한 도전

한국교회들을 방문하면서 한국교회들이 무슬림 전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무슬림들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지만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무슬림 전도의 상황을 소개하면서 한국에서의 무슬림 전도에 대해 도전하며 차후 무슬림 전도를 위한 훈련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기도제목

1,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도권에 작은 가정교회들이 들불처럼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용사들이 되어 또 다른 가정교회들을 재생산할 수 있고 또한, 이를 위해 많은 교회를 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학생 선교단체인 CAN MISSION을 세워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을 제자훈련을 시켜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수많은 대학생들이 훈련받아 여러 나라와 인도네시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9년 동안 사용하였던 센터 건물을 주인이 더는 세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장소가 없으면 대학생들을 계속 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이 연장되든지 아니면 땅을 주셔서 건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싸울루스 고등학교를 지난 6년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2월부터 신입생들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싸울루스 고등학교가 4천만 무슬림 미전도종족인 순다 종족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300여 종족의 학생들을 받아 훈련하여 세우는 학교가 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종족의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들을 통해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 김귀영/조주현/요한/찬희 선교사 (인도네시아, 임마누엘 협력선교사)

호피 인디언 건축 선교 보고서



호피 인디언은 미국 내 아메리카 원주민으로 애리조나 주 북부 푸에블로 인디언을 가리키며 15세기 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 200년간 스페인 침략군의 극심한 횡포에 시달리게 되는데, 결국 종족의 전통과 종교를 지키기 위해 평지보다 수백 피트나 높은 외딴 섬 같은 평평한 바위산인 ‘메사(Mesa)’ 위에 천연 요새를 짓고 살고 있으며, 호피 인디언들은 320년 전 미국인들의 잘못된 선교활동으로 교회를 철저히 외면한 채 자신들이 의지하는 신들을 믿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1993년 고 장두훈 선교사의 사역으로 320년 동안 닫혀있던 호피족의 마음이 처음으로 열리게 되었는데 이후 알코올 중독, 도박 등으로 망가져 있던 호피족

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온 힘을 쏟으셨으며, 장 선교사는 2002년 봄, LA 교회들로부터 구호품을 받아 전달하려 가는 도중 사고로 순교 하셨습니다.

현재 임태일 선교사가 9년째 호피 보호 구역에서 선교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매일 아침저녁으로 척박한 땅을 일구는 일로 하루를 시작해 예배 및 선교활동, 교회 건축 공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밖으로는 미국 내 거주하는 한인 기독교인들의 호피 선교활동 요청에도 발 벗고 나서 호피 선교 활동에 큰 지도자이자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선교 기간은 11월 4일~11월 12일까지 8박 9일간이었으며, 참가 인원은 김인환 목사님, 이산돌 목사님, 정광록 집사님, 전방현 집사님, 김일재 집사님, 박상문 집사님, 박동운 집사님, 그리고 저를 포함한 8명이 함께 떠났습니다. 11월 4일 플렉스텝에서 1박하고, 다음 날 건축 자재를 사서 트럭과 달구지로 5시간 소요해서 호피 교회에 도착해서 짐을 내리고, 다시 플렉스텝으로 차를 리턴하기 위해 이동, 호피 교회로 돌아 오는데 왕복 5시간 소요되어 11월 5일 토요일 밤에 돌아와 본격적인 건축 사역 시작과 예배, 섬김은 11월 6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식당 청소, 음식 준비 후에 예배를 드렸으며 예배 후에 호피 교회 성도님들께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건축 사역 내용은 기도실 전기, 목공예 작업실 건축, 예배당 내부, 남녀 화장실 샤워장, 식당 주변 데크 페인트 및 보수 공사를 하였습니다.

11월 7일~11월 10일까지 함께 동행하셨던 김인환 목사님, 이산돌 목사님 두 분은 내년 선교를 위한 나바호, 뉴멕시코 인디언 비전 트립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2명의 선교사님을 만나고 9개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현장을 돌아 보면서 적합한 사역 내용, 장소등을 살펴 보시고, 수리가 필요한 곳들도 체크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재래식 화장실, 예배당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 등등...) 건축 선교를 가면 한 곳에 머무는 특성으로 다른 사



역을 돌아볼 기회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비전 트립 선교 답사를 통해 다음 선교를 위한 많은 정보를 얻게 된 것이 큰 소득이었다고 두 분 목사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이번 선교를 통해 감사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몸을 담보삼아 하는 건축 선교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안 좋으셨던 팀원 분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 아름다운 작업실을 건축하셨던 팀원들 모두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특별히 뒤에서 함께 힘을 주셨던 청년부, 기도와 물질로 많은 후원을 베풀어 주셨던 교회의 지체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선교의 현장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일찍부터 배워 나가는 2세들로 성장하는 선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호피 지역의 토속 종교, 사머니즘, 우상 숭배, 술, 마약, 도박, 음란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가정이 회복되어 지도록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호피 건축 선교 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글 한준수
(북부 평원 니제르 목장, 2부 예배 안내팀, 산상 기도회팀)





기독교 문명을 구현했던 선구자 프랭클린 올링거(FRANKLIN OHLINGER, 1845~1919)

1845년 오하이오주 샌드스키 카운티에서 태어난 올링거 선교사는 1888년 1월부터 1893년 9월까지 한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한 미국 북 감리교 출신 선교사로 한국으로 파송되기 전 중국에서 16년간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었고 한국에서 첫 사역을 시작할 당시 그는 42살이었다. 20대 청년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던 언더우드나 아펜젤러에게는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한 그의 합류로 많은 조언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

한국에서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선교사로 활동하였으나 그의 사역은 한국 기독교는 물론 인쇄와 출판 및 교육 사업에서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 그는 한국 선교 첫해에 우리나라 최초의 인쇄소인 삼문활판소를 배재학당에 설립하였고 우리나라 최초의 영문 잡지인<THE KOREAN REPOSITORY> 역시 그에 의해 창간되었다.

올링거는 여러 전도 문서를 번역 출판하였을 뿐 아니라 그가 쓴 설교학과 목회학 저서들은 한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에서도 신학교 교재로 채택되었고 그의 아내와 함께 초기 한국 감리교 찬송가의 상당수를 번역하여 보급하기도 하였다. 그는 후대의 기독교 역사학자들에 의해 미국 북 감리교의 초기 선교 신학을 대변한 선교사로 19세기 말, 선교 신학의 주요 흐름이었던 '기독교 문명론'을 한국과 중국, 일본의 선교 현장에서 구현하였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남북 전쟁으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올링거는 부친과 형이 남북 전쟁에서 돌아온 1865년 저먼 왈라스 대학에 입학했다. 대학을 졸업한 올링거는 미시간의 사기노와 베이시티 독일 감리교회 등에서 설교자로 1년간 사역한 뒤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의 독일 감리교회에서 2년간 목회하였다. 진로를 놓고 기도하던 중 북 감리교의 한 감리사의 조언에서 소명을 발견한 올링거는 1870년 가을 당시 중국 선교의 중심지였던 복건성의 수도 복주에 파송되었다. 복주에서 올링거 선교사는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한 맥클레이 선교사를 만났다. 그는 중국에 파송된 그다음 해였던 1871년 볼드인 신학교를 조직하였고, 1874~75년에는 최초의 한문 신문인<순산사자>를 발간하였다.

1876년에는 귀국하여 독일 감리교회 목사 존 슈바인푸르트의 딸 베르타와 결혼하였다. 올링거는 1881년 최초의 근대 학교인 복주 중서 학원을 설립, 초대 교장에 취임하였다. 그러나 당시 중서 학원의 설립은 선교사 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켰다. 300명의 학생 가운데 절반이 비기독교인이었던 이 학교가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은 영어교육 때문이었다. 당시 많은 선교사는 '삼자 정책'을 따르지 않은 올링거 선교사의 '신교육 운동'에 반대했다.

결국, 이 논란으로 인해 올링거 선교사는 1887년 말, 아펜젤러의 요청으로 한국으로 파송되었다. 올링거 선교사는 파송 첫해에 인천에서 오두막 예배당인 인천 내리 교회를 세웠다. 1891년 1월에 올링거 선교사는 한국 최초로 서양식 교육을 받은 여자 의사 박에스더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1890년부터 1893년까지는 정동교회를 담임하며 복음을 전했다. 한국 선교 3년째가 되던 1890년, 올링거 선교사는 현 대한기독교서회의 전신인 조선성교서회(朝鮮聖敎書會)를 언더우드 등과 함께 설립하고 초대 회장이 되었다.

1889년 2월부터 그는 스크랜튼 대부인이 자기 집에서 시작한 여성들의 모임을 이어받아 여성교회 담임목사가 되었고 1893년에는 당시 한반도의 주도적인 항구 가운데 하나였던 원산에서 의료선교사 맥길과 함께 기독교 서적을 팔며 병자도 고치는 사역을 감당했다. 그 해 5~6월에 올링거 선교사는 열두 살과 아홉 살 난 아들과 딸을 편도선염으로 잃었다. 한국에서 죽은 최초의 서양 어린이들인 이들을 양화진에 묻은 올링거 선교사 부부는 1893년 9월에 한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안식년을 마치자 올링거 선교사 부부는 1895년 다시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어 1911년까지 복주에서 인쇄소와 대학을 중심으로 사역하였다. 그 이후 은퇴한 올링거 선교사는 미시간 앤 아버에서 1919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톨레도 우드론 공원묘지에 안장되었고, 올링거 부인은 1943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남편 곁에 묻혔다.

출처: [HTTP://WWW.YANGHWAJIN.NET](http://www.yanghwajin.net)
사진 출처: [HTTPS://S3-US-WEST-2.AMAZONAWS.COM](https://s3-us-west-2.amazonaws.com/http://photohs.co.kr/xe/files/attach/images/298/307/001/pic43.jpg)
[HTTP://PHOTOHS.CO.KR/XE/FILES/ATTACH/IMAGES/298/307/001/PIC43.JPG](http://photohs.co.kr/xe/files/attach/images/298/307/001/pic43.jpg)
편집부 정리



인천 내리 교회



올링거 선교사 기념비

커져가는 하나님 나라, 성당하는 산호세 평원

안녕하세요. 산호세 평원을 담당하고 있는 조종연 목사입니다. 산호세 평원은 산호세 시 전체 지역을 커버하는 63개의 ZIP CODE 가운데 95129를 제외한 전 지역을 포함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지도상에서 보았을 때는 교회 아래 동남쪽으로 길게 타원형을 그리며 위치해 있습니다. 산호세 평원에는 평원지기로 평원을 섬기는 김태영 장로님 내외분과 5개 초원(강성태, 김영철, 김학수, 위현량, 한광선), 27개의 목장, 그리고 한 개의 소그룹을 포함해서 약 149가정이 소속해 있습니다.

일부의 목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목장이 5가정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목원이 다른 평원의 목장들보다 더 많습니다. 다른 평원들보다 우리 교회에 등록된 성도님들의 숫자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목장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다 모이니까 인원이 30여 명이나 되어서 거의 웬만한 개척 교회 수준입니다. 그래도 목장마다 매주 성실히 모이시며 서로를 알아가고 매주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영혼 구원에 관한 도전의 말씀들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희 평원에는 올해 처음으로 목자로 헌신한 목자 가정이 6가정(김정연/강지은B, 노윤서/노은영, 박재성/박경신, 백원종/강주연, 이정미A, 이상은/한희숙)이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성경 일독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한 은혜와 도전들을 받으시며 새로 목자의 삶에 헌신하셨습니다. 처음 목자의 삶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너무 많은 목원 가정들이 맡겨진 것이 아닌가 해서 한편으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감당할 능력을 주실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새 목자님 가정들에 구령의 열정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고, 목자님들이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섬김으로 가르치고 삶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기에 부족하지 않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평원 구성과 다른 새로운 구성인자 목장들도 아직은 사귀는 관계에 있고 김태영 장로님과 제가 매주 목장들을 심방하면서 목장과 평원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원 내의 모임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교제와 연합, 동역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지면을 빌어 아직 목장에 속하지 않았지만, 함께 영혼 구원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산호세 지역의 성도님들을 목장에 초대합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생명력처럼 커져가는 하나님 나라가 산호세 평원의 실재가 되어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산호세 지역에 사시는 성도님들 중에 목장에 속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나 김태영 장로님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글 조종연 목사 (산호세 평원, 전도위원회 담당)





5학년들의 제자바라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13:35)

1월 15일부터 2월 26일까지 매 주일 오후 2시~ 4시까지 5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초등부 제 1기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7주 동안 1주 KNOWING JESUS, 2주 BEGINNING A NEW LIFE, 3주 TALKING WITH CHRIST, 4주 GROWING IN CHRIST, 5주 FAITH JOURNEY, 6주 SERVING OTHERS, 7주 GRADUATION PARTY 로 진행되었으며 매주 말씀 암송과 성경 읽기, 그리고 매일 큐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서로 “2시 됐어, 늦지 마” 하면서 복도에서 내려가면서 아이들을 모아옵니다. 10명이 옹기종기 사무실에 모여 “오늘은 찬양으로 시작 안 해요?” 혹은 “나 오늘 암기는 포기야” 하면서 자기를 숙제를 꺼냅니다. 아이들이 서로 얼굴 보는 것을 즐거워하며,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여기는 5학년 제자 훈련이야, 너는 몇 년 후에 올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의젓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서로 대답을 들어가면서 나의 주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했던 것은 “전도사님은 친구 별로 없죠?” 라고 웃으면서 저를 놀리는 모습에, 저희도 모르게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그 시간이 참으로 귀했습니다.



다음은 초등부 제자 훈련을 마친 여섯 아이들의 짧은 간증입니다.

“I LEARNED THAT GOD ALLOWS BAD THINGS AND HARDSHIPS TO HAPPEN TO DISCIPLINE US. WE MUST BE TRANSFORMED INTO THE IMAGE OF JESUS. TO DO THAT WE MUST DENY OURSELVES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HIM. WE SHOULD NOT GIVE GOD LEFT OVER TIME. WE MUST KNOW JESUS AND GOD TO HAVE ETERNAL LIFE, AND BELIEVE IN THEM. WE SHOULD HEAR, READ, STUDY, MEMORIZE, AND MEDITATE ON GOD’S WORD. GOD PROMISED THAT IF WE ASK, SEEK AND KNOCK IT WILL BE GIVEN, FOUND, AND OPENED. YOU SHOULD TELL OTHERS ABOUT CHRIST TO SAVE THEM, PRAY FOR THOSE WHO DO NOT KNOW ABOUT JESUS CHRIST, OUR GOD IS A REALLY GREAT GOD.” (ESTHER SUH 5TH)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힘들고 안좋은 일을 허락하신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매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 남은 시간을 드러서는 안되며,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해야 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고, 찾고, 열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예수님을 전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에스더)

“TO TELL THE TRUTH, IT WASN’T EASY, BUT I TOTALLY THOUGHT IT WAS WORTH IT. IT BOOSTED MY KNOWLEDGE ON JESUS AND WHAT HE DID FOR US, I LEARNED A CHRISTIAN LIFE IS NOT EASY, BUT THAT WE DO IT FOR THE GLORY OF GOD. WE HAVE TO DENY OURSELVES, PICK UP OUR CROSS AND FOLLOW JESUS. THE CLASS ALSO TAUGHT US HOW TO BE BLAMELESS AND INNOCENT IN A WICKED GENERATION, HOW TO STORE UP GOOD TREASURE IN HEAVEN, HOW TO FOLLOW THE FAITH ROAD AND HOW TO STRUCTURE OUR PRAYER (A.C.T.S.). WE HAVE ALREADY WON THE FIGHT THROUGH JESUS.” (JUSTIN LEE 5TH)

“솔직히 말해, 제자훈련이 쉽지는 않았지만, 정말 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지식이 더 생겼고, 크리스천의 삶이 쉽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또 약한 세대에서 흠없고 순전하게 사는 법, 좋은 보물을 천국에 쌓는 법,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법, 그리고 기도의 순서(A.C.T.S.)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저스틴)

“AT DT I HAD FUN, ALTHOUGH I HAD LEARNED FAITH AND ACCEPTED IT AS A PERMANENT TRAIT, I REALIZED I HADN’T SPENT MUCH TIME TALKING [TO] AND GROWING WITH CHRIST. I HAD TIME TO DO IT AT DT AND WHILE I WAS DOING DT HOMEWORK. THE Q.T. HELPED ME TO UNDERSTAND MUCH STUFF I HAD NOT KNOWN, ALSO, I LEARNED I HAD NOT BEEN SERVING OTHERS AS MUCH. I ALSO SET NEW GOALS FOR LIFE, SUCH AS KNOWING JESUS AND BEGINNING A NEW LIFE WITH CHRIST. D.T. GAVE ME A CHANCE ON KNOWING HOW THE BIBLE IS TRUE. THIS IS MY TESTIMONY ON D.T.” (ABIGAIL CHO 5TH)

“DT는 재밌었습니다. 믿음에 대해 배우고 믿음이 영원한 것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자라는 데에는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DT시간과 DT 숙제하는 시간에 할 수 있었습니다. QT는 제가 모르던 많은 것을 깨닫는데 도움이 되었고, 저가 다른 사람들을 별로 섬기지 않아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저는 삶을 위한 새 목표를 세웠는데, 예수님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하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DT는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아는 기회를 주었으며, 이것이 DT에 관하여 저의 간증입니다.” (애비게일)

“SOME STUFF I LEARNED IN D.T, WAS ABOUT GOD AND WHAT HE DID FOR US, ALSO, WE LEARNED THAT WE SHOULD DO OUR Q.T, BECAUSE WE CAN LEARN ABOUT OUR SINS AND REPENT, NEXT, WE LEARNED THAT GOD IS ALL POWERFUL, AND [THAT] HE CREATED EVERYTHING. THEN WE LEARNED THAT IF GOD DIDN'T LOVE US, THEN WHAT WE SHOULD BE REMEMBERED FOR?” (CHRIS CHUNG 5TH)

“DT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배웠고, 우리가 큐티를 해야한다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고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배웠고,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삶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크리스)

“I LEARNED ABOUT HOW TO PRAY TO GOD, HOW TO NOT SPELL BIBLE LIKE THIS “BIBLE”, HOW TO GET ALONG WITH EACH OTHER, HOW TO BE PATIENT, HOW TO BE KIND, HOW TO BE CLOSER TO CHRIST, HOW TO LEARN MORE ABOUT CHRIST, AND HOW TO PRAY TO KNOW CHRIST.” (PAUL HAN 5TH)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 성경을 BIBLE이 아닌 BIBLE로 써야 한다는 것, 사이 좋게 지내는 법, 인내하는 법, 친절하게 대하는 법,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법, 예수님에 대해 더 배우는 법과 예수님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폴)

“WHEN I FIRST HEARD MY PARENTS SIGNED ME UP FOR DISCIPLESHIP, I WAS SHOCKED, “WHY?” I THOUGHT, I REALLY DIDN'T WANT TO GO. ON MY FIRST DAY OF D.T I REALIZED IT WASN'T SO BAD AFTER ALL. MY FELLOW “DISCIPLES” AND I LEARNED MORE ABOUT JESUS. THE LESSONS WERE SERIOUS BUT ALSO VERY HUMOROUS. I LOVED BEING A “DISCIPLE” OF CHRIST IN DISCIPLESHIP TRAINING. IT WAS REALLY FUN AND INTERESTING. FIRST OF ALL, I LIKED THE SNACKS. THEY WERE REALLY GOOD; ONLY TOO BAD WE DIDN'T HAVE SECONDS. THE SNACKS WERE REALLY GOOD AND ALL, BUT THAT WASN'T MY FAVORITE PART OF D.T. OF COURSE BECAUSE I LEARNED THAT WE SHOULD NOT LOVE THE THINGS IN THE WORLD. UNLIKE MANY KIDS, I LIKED IT WHEN I HAD HOMEWORK BECAUSE I GOT CLOSER TO GOD. I ALSO HAVE MORE KNOWLEDGE ABOUT THE BIBLE. FOR EXAMPLE, PASTOR SOO TAUGHT US TO USE THE GIFT WE RECEIVE TO SERVE ONE ANOTHER. I ALSO LEARNED THAT WE SHOULD BE CHEERFUL GIVERS, INSTEAD OF SELFISH PEOPLE. I LEARNED A LOT IN 5TH GRADE DISCIPLESHIP TRAINING, IT REALLY HELPED ME TO KNOW MORE ABOUT GOD.” (GINA KIM 5TH)

“처음에 부모님이 저를 제자훈련에 등록시키신걸 알았을때 저는 깜짝 놀라 “왜?”라고 질문했습니다.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제자 훈련 첫날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느꼈고, 저와 친구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배웠습니다. 수업이 진지했지만, 아주 재미있었고 제자반의 ‘제자’인것이 좋았습니다. 정말 재밌고 흥미로웠는데 무엇보다 간식이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두번 먹을 수 없었던 점은 아쉬웠습니다. 간식이 좋긴 했지만, 그것이 제자 훈련 중 제일 좋았던 건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안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많은 아이들과 달리 저는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숙제가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전도사님께서 우리가 받은 은사로 서로 섬기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도 배웠고, 5학년 제자 훈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나)

제자반은 주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혼자 할 수 없고, 말씀 없이 할 수 없고, 훈련 없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7주 동안 제가 아이들에게 주기보다 오히려 더 많이 받은 시간이라 감사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다른 성격을 알아가고, 매주 통화하며 아이들의 개인적인 생활, 느낌, 바램을 조금씩 배워가며 주님께서 정말 한명 한명 특별하고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와 함께 주무시고, 음식을 드시고, 쉬시면서 3년 동안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을까,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얼마나 많은 책임과 사랑을 쏟아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글 김수예 전도사 (초등부, AWANA 담당)
번역 편집부



학자들이 말하는

전도의 정의

“전도는 부업이 아니라 본업이다” _ 마이클 그린

전도학의 클래식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초대 교회의 전도] 라는 책의 저자인 마이클 그린은 이 책에서 “전도는 부업이 아니라 본업이다” 라고 했다. 전도는 우리의 ‘파트 타임 잡(PART TIME JOB)’이 아니라 ‘풀 타임 잡(FULL TIME JOB)’이다. 누군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고 물을 때 “의사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저는 복음 전하는 것이 본업인데, 사람들을 치료하며 전도 잘하려고 부업으로 의사 노릇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이다. 학생은 공부가 본업이 아니고, 직장인은 회사 일이 본업이 아니라 전도가 본업이다. 직장에 돈만 벌기 위해 가면 우리 인생이 피곤해진다. 하지만 “난 직장에 복음을 전하러 왔어. 우와! 전도하는데 월급까지 주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사명 없이 살면 얼마짜리 월급쟁이밖에 안 되지만, 전도를 본업으로 생각한다면 삶은 진정 값진 것이다. 전도를 본업으로 아는 사람들은 직업을 소명으로 알고 직업을 통해 전도하려고 애쓴다. 전도를 본업으로 아는 사람들은 학업의 목표가 소명을 이루는 것이기에 학업을 통해 전도자로서의 준비를 한다. 직업과 소명이 일치하며, 사업과 소명이 일치하는 삶이 바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이다.

“전도는 삶의 최우선순위다” _ 레이튼 포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선순위에 따라 생활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할 일, 해야만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급하게 할 일과 천천히 해도 될 일에 대한 순서를 아는 사람이다. 레이튼 포드는 날마다 최우선 순위를 정할 때 반드시 전도를 제1순위에 놓으라고 말한다. 전도가 우리 삶에 최우선 순위가 될 때 하나님께서도 우선적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전도는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다.

“전도는 교회의 영적 온도계다” _ 로버트 콜먼

전 세계 200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수백만 부 이상 팔린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로버트 콜먼 교수는 “전도는 한 교회의 영적 온도계다”라고 정의한다. 어떤 교회는 말씀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동하는데, 어떤 교회는 복음의 피리를 불어도 꿈쩍하지 않는 이유를 콜먼은 영혼 구령의 열정이 없고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진정 전도는 한 교회의 영적 온도계이다. 전도하는 교회는 열정이 있고, 전도하는 교회는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는 교회는 뜨거울 수밖에 없다.

전도는 어명이다 (김두식 저) _ 중에서



삼색 소보로 덮밥과 마라황과

저는 8살, 5살, 3살의 세 아이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와 액티비티를 하고 나면 성큼 다가온 저녁 시간, 미리 준비해놓은 저녁거리가 있다면 다행일 테지만, 매일매일을 급하게 냉장고와 팬트리를 뒤져 한 끼를 해결하는 게 일상이곤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한 그릇 요리를 찾게 되는데, 한 배에서 나왔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제각각의 식성을 가진 세 아이와 남편의 식성을 동시에 맞추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온 가족이 즐길 수 있으면서도 영양소도 챙길 수 있고 만드는 법도 간단한 한 그릇 요리라면 최고의 메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던 중, 미디어를 통해 접한 한 그릇 요리인 “삼색 소보로 덮밥”을 준비해 보았고, 모든 가족이 감사의 기도로 즐겼던 메뉴가 되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고기와 오이, 계란의 세 가지 재료 색으로 만들어져 보기에도 좋고, 쉽게 떠먹을 수 있으니 아이들도 쉽게 먹을 수 있는데다 영양소도 갖춰져 있어, 아이를 두신 가정에서, 혹은 목장모임에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요리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삼색 소보로 덮밥과 같은 단품 요리와 함께 곁들일 수 있는 중국식 장아찌 요리인 ‘마라황과’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처음으로 목장 모임 식사를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다과만 나누어 오던 지난 경험과 달리, 아직은 생소한 여러 목원가정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해야 하는데, 너무 과해선 안 되지만 감사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식탁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목장의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달콤 짭짤한 돼지고기 덮밥인 차슈동과 함께 매운 김치 대신 새콤달콤한 오이 요리인 마라황과를 식탁에 올렸는데, 목원 분들께서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목장을 호스트하며 마음속에 쌓였던 부담이 깨끗이 사라졌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이곳 캘리포니아에 주신 너무나 큰 축복인, 아름다운 자연과 그 속에서 자란 식재품으로 건강한 요리를 하고 가족과 주변의 감사한 분들과 그 음식을 나눌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오늘도 식탁에 올리는 음식을 정성 들여 준비할 사랑하는 가정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따뜻한 식사로 무력무력 자라나는 풍요로운 식탁을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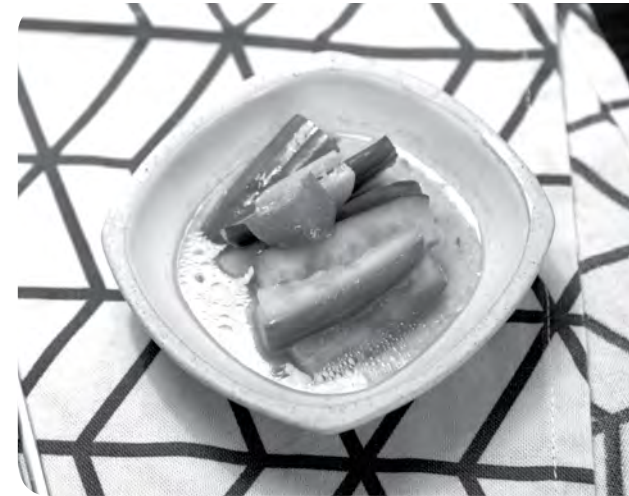
삼색 소보로 덮밥(4인분) 만들기

재료

- 밥 (4공기)
- 갈색 소보로 : 다진 소고기(혹은 돼지고기, 닭고기) 400g, 다진 생강 1큰술, 맛술 4큰술, 간장 4큰술, 설탕 4큰술
- 녹색 소보로 : 페르시안 오이(손바닥크기) 2개
- 노란색 소보로 : 달걀 4개, 맛술 2큰술, 설탕 2큰술, 소금 · 식용유 약간씩
- 참깨소스 : 참기름 4큰술, 간장 4큰술, 물 4큰술, 맛술 2큰술, 식초 2큰술, 설탕 2큰술, 참깨 4큰술

만드는 법

- 따뜻한 밥에 단춧물을 더해 간을 해 둡니다.
- 양념에 재워 둔 소고기를 팬에 볶습니다.
- 오이는 얇게 썰고, 소금을 뿌려 15분간 절인 다음 손으로 물기를 짭니다.
- 달걀은 풀어 체에 거른 뒤 소금을 넣고 섞은 후,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달걀 푼 것을 붓고, 젓가락으로 휘저어가며 스크램블드 에그를 만듭니다. 움푹한 볼에 밥을 깔고 달걀, 쇠고기, 오이를 보기 좋게 담습니다.



마라황과 만들기

재료

- 페르시안 오이 (손바닥크기) 12개, 천일염 1/3컵, 생수 1컵, 홍고추 1개, 마늘 10쪽, 두반장 1큰술, 식초 1컵, 설탕 1컵, 고추기름 또는 참기름 1큰술

만드는 법

- 오이를 소금과 물에 30분간 절인 후, 절여진 오이는 살짝 헹구어 물기를 완전히 닦습니다.
- 마늘은 편으로 썰고 홍고추는 채썰어 놓습니다.
- 식초와 두반장, 설탕을 섞은 소스를 유리병에 붓고 절여진 오이를 넣습니다.
- 반나절 실온에서 보관한 후 냉장 보관하세요.



크리스천 명언

.....

성경은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마저도 사랑이라고 말한다.
대개 그들이 동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 G.K. 체스터튼 (1874-1936)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금처럼 녹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석으셨습니다.

우리가 멍에를 싫어하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상한 갈대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세상 지혜로움이 극하여서
예수님이 미련한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가 너무 높아져서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Times Square Church

에서의 특별한 예배

뉴욕으로 친구와의 여행! 말만 들어도 신나는 일이 이번 봄에 내게 선물로 주어졌다. 남편의 기꺼운 배려로 인해 3일간의 짧은 뉴욕 여행일정이 잡혔다. 한국에서 방문한 친구와 나는 각자의 일상을 모두 끝낸 금요일 밤, JFK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뉴욕에 도착했을 때는 토요일 새벽 6시. 뉴욕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차가운 겨울 날씨와 매서운 바람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공항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뜨거운 커피로 몸을 데우고 마치 할머니들처럼 옛날이야기로 이른 아침 시간을 때우며 우리 여행은 시작되었다.

뉴욕은 높은 빌딩과 택시, 그리고 수많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길고 복잡한 출과 여러 가지 언어들 속에 섞여 그들처럼 빠르게 걸어 다녔다. 첫 목적지는 MOMA(MUSEUM OF MODERN ART)였다. 유명한 그림들이 가득한지라 낮 시간은 모두 그림 감상으로 보냈고, 저녁에는 카네기 홀로 향했다. 그리고 기분 탓이었겠지만,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듣고 있자니 피곤이 모두 풀리는 듯했다. 공연이 끝난 밤에도, 우리는 숙소로 돌아갈 줄 몰랐다. 전광판이 번쩍이는 타임스퀘어 거리에서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사진을 찍고, 가족들을 위해 작은 기념품도 샀다. 이 선물들을 가족들에게 안겨 줄 생각을 하니 마음이 따뜻하고 좋았다. 우리는 기념품이 든 봉지를 마치 보물인 양 품에 소중히 안고 돌아오는 것으로 첫날을 마무리했다.

둘째 날은 주일이였다. 나는 무척 예배가 드리고 싶었다. 주일이라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주님께 꼭 감사를 드리고 싶었다. 그런데 이번 여행의 동반자인 내 대학 친구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 그러나, 여행길에 오르면서부터 나는 마음속으로 주일 일정을 위해 기도했기에, 둘째 날 아침, 친구에게 오늘은 주일이니 교회에 가지 않겠냐고 물었다. 친구는 몇 초 생각하는 듯하더니, 흔쾌히 따라나섰다. 그래서 우리는 숙소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에 가기로 했다. 다른 어느 브로드웨이 극장처럼 보이는 허름하고 네모난 건물의 간판에 'TIMES SQUARE CHURCH'라는 교회 이름이 보였다. 건물 가까이 다가가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서울의 출근 시간 지하철을 타는 것 같았다. 교회는 심플한 외관과는 달리 내부는 오페라 극장 마냥 붉고 웅장하고 화려했다. 오래전 유럽 여행을 갔을 때 보았던 화려한 관광 명소 교회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와는 대조적으로 수많은 이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습에 감동이 일었다. 예배 시간인 10시에 딱 맞춰 들어갔을 때, 이미 1층은 꽉 차서 2층으로 올라가야 했는데 그나마 떨어져 앉는 것만 가능했다.

뉴욕에서 예배라니! 웬지 모를 안도감을 느끼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런데 기도를 채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흘렀다. 대체 왜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멈춰지지도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찬양 속에 나를 맡기기로 했다. 그때 사람들이 부르고 있던 찬양은 'AWESOME' 이었다.

My God is AWESOME! HE CAN MOVE THE MOUNTAINS,
KEEP ME IN THE VALLEY, HIDE ME FROM THE RAIN,
My God is AWESOME! HEALS ME WHEN I'M BROKEN
GIVES STRENGTH WHERE I'VE WEAKENED. FOREVER HE WILL REIGN,
He's MIGHTY! HE'S HOLY! HE'S GREAT! DELIVERER! PROVIDER! PROTECTOR! (JENKINS, CHARLES)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마다 내 마음은 더 뜨거워지고 눈물은 더 흘러내렸다. 찬양 가사를 그냥 읊을 수가 없었다. 찬양이 내 입술을 통해 한 마디 한 마디 나올 때마다, 마음 속 깊이 숨겨져 있던 전원이 하나씩 들쭉켜지는 것 같았다. 그래, 내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지! 너무나 좋으신 분! 내 마음은 이내 감사와 기쁨이 가득 핀 봄꽃 들판같이 기쁨과 감격으로 생생해졌다.

그날의 설교 말씀은 이사야 55장, "A MESSAGE FOR THOSE WHO ARE THIRSTY AND BROKEN" 이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아직도 목마르고 힘이 든 것일까? 왜 우리는 지금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과거의 은혜나 곱씹으며 살고 있나? 왜 우리는 약속하신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승리한 누군가의 스토리를 들으며 손뼉이나 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능력과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제대로 접속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110V, 220V 콘센트 모양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 접속되는 방법이 모두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잘 접속된다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약속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는 비와 같다고 했다.(사 55:10-12) 하늘에서 내린 비는 다시 하늘로 헛되어 돌아가지 않는다. 땅에 스며들어 씨앗을 자라게 하고 꽃 피고 열매 맺게 한다.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헛되어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하셨다.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던 캘리포니아의 겨울이 떠올랐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축복을 풍성한 비같이 내려 주실 때, 마음을 활짝 열고 받으라 하셨다. 그러면, 땅을 적시고 저수지에 물을 다 채우고도 남아 주위로 흘러넘치는 축복의 삶이 될 것을 믿는다고. 영어 설교라 100% 이해하지 못했다 해도, 내 마음은 평안과 소망, 기쁨으로 가득 차올랐다.

벌써 언제 여행을 다녀왔나 싶다. 사진이 없었더라면 실감 나지 않을 만큼 짧은 시간이였다. 하지만 나는 이번 뉴욕 여행 기념선물로 '이사야 55장' 말씀을 받은 것 같다. 봄을 맞아 화분에 심어 둔 우리집 채소 씨앗들을 살필 때마다 이 말씀도 함께 떠오른다. 그리고 비가 내릴 때마다 TIMES SQUARE CHURCH에서의 예배와 말씀의 축복을 기억하게 될 것 같다.

글 한연선 (산호세 평원 인도네시아 마나도 목장, 편집팀장, 유치 K-1부 교사)

성경 속의 길이와 무게

우리가 어릴 적부터 알았던 성경의 여러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일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유명한가요?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블레셋 군대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돌맹이 하나로 물리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절대 다윗이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그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왜 전혀 이길 것으로 생각할 수 없었나요? 그것은 바로 골리앗의 신체조건이 다윗의 것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을까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골리앗은 홀로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나와 싸워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40여 일이 지나도록 아무도 이스라엘에서 싸우겠다고 나서서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왕인 사울조차 나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의 신체조건과 무장이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골리앗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돌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오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베를 채 같고 창 날은 철 육백 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삼상 17:4~7)

그의 키가 여섯 규빗 한 뼘입니다. 이것을 현재의 길이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한 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입니다. 약 45.6cm라고 봅니다. 게다가 한 뼘이 더 있었으니 골리앗의 키는 약 3m가 족히 넘었습니다.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는 놋 오천 세겔이라고 말합니다. 한 세겔은 11.5g으로 놋 오천 세겔은 57.5kg이 됩니다. 그럼 창 날은 철 육백 세겔이니 얼마나 되나요? 창날의 무게만 6.9kg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 그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그의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소년이었던 다윗, 사울의 갑옷조차 맞지 않아 불편하여 입지 않았던 그 작은 다윗이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자신의 신체조건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적군의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비겁하게 뒤로 물러서지 않고 싸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다윗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골리앗, 키가 3m나 되어서 힘 대결에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 같은 골리앗을 앞에 두고 그가 당당히 싸우려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심이 자신과 함께 하시며,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길이와 무게의 단위를 아시게 되니 골리앗과 싸운 다윗의 믿음과 용기가 더 실감나게 여겨지시나요? 길이의 단위와 무게의 단위를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길이의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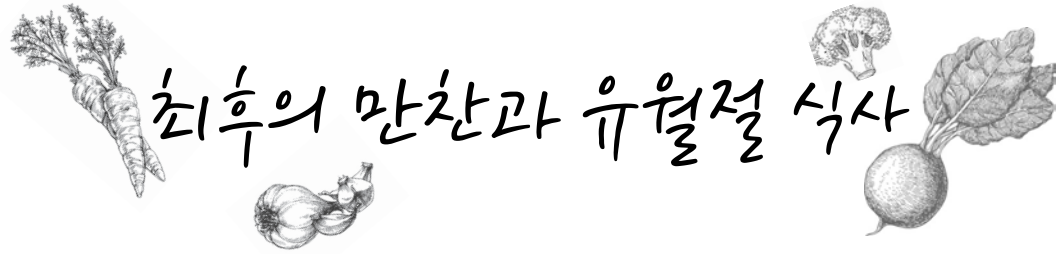
명 칭	비 교 치	길 이	성 구
손가락 너비(FINGER)	1/4손바닥 너비	1.85cm	렘52:21
손바닥 너비(HAND BREADTH)	1/6규빗	7.4cm	출25:25
뼘(SPAN)	1/2규빗	23.2cm	출28:16
규빗(CUBIT)	6손바닥 너비	45.6cm	출25:10
길(FATHOM)	1/100스타디온	1.85m	행27:28
갈대(REED)	6규빗	2.67m	겔29:6; 계21:15
스타디온(STADIUM)	100길	185m	마14:24; 고전9:24
안식일 허용거리(SABBATH DAY'S JOURNEY)	2000규빗	약 1km	민35:5; 행1:12
리(ROMAN MILE)	일천걸음	1.48km	마5:41
하루가는 길(DAY'S JOURNEY)		약 32km	출5:3

무게의 단위

시 대	명 칭	비 교 치	길 이	성 구
구 약	게라(GERAH)	1/20세겔	0.57g	출 30:13
	반 세겔(SHEKEL)	1/2세겔	5.7g	창 24:22
	베가(BEKA)/페레스	1/2 세겔	5.7g	출 38:26
	핌(PIM)	2/3 세겔	7.6 g	
	세겔(SHEKEL)	20게라	571.2g	삼하 14:26
	므나(MINAH)	50세겔	34.27kg	느 7:72
신 약	달란트(TALENT)	겔		출 38:25,27
	드라크마(DRACHMA)	1/2 세겔	약6g	요 19:39
	리트라(LITRA)/라드	약1/100달란트	0.373kg	요 12:3
	므나(MINAH)	5/4리트라	0.56kg	마 18:24
달란트(TALENT)	60므나	34kg	계 16:21	

글 박기한 목사(남부 평원, 지역봉사 위원회, 관리 위원회, 행정 담당)





절기는 어떤 나라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에 대한 문화를 이해할 때, 미국 생활을 더 잘하게 된다. 반대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생활할 때, 추석이나 설날을 모르고는 한국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성경도 마찬가지다. 성경도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쓰였기 때문에, 당시의 절기 문화를 알게 되면 성경 내용을 더욱 생생하게 이해하게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유월절 절기 중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셨던 최후의 만찬도 유월절 만찬이었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유월절 만찬 풍습을 바탕으로 최후의 만찬을 재구성해보려고 한다. 유월절 만찬은 왠지 모르게 가족 잔치가 아니었다. 긴 시간 동안 진행되는 격식 있는 식사였다. 음식 메뉴가 정해져 있고, 포도주도 순서대로 먹었다.

만찬 메뉴는 무교병, 어린 양고기, 쓴 나물, 소스, 구운 달걀, 포도주이다. 무교병(마짜)은 빵을 발효시켜 먹을 여유도 없을 정도로 긴박했던 출애굽 상황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어린양 고기는 입구에 어린양의 피를 바르고, 집안에서 양고기를 먹던 장면을 기억하는 것이다. 쓴 나물(말르)은 민들레, 고추냉이, 파슬리, 셀러리 등을 먹는데, 애굽에서의 쓰디쓴 노예 생활을 상징한다. 소스(하로셋 소스)는 애굽에서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던 고역을 기억하는 것으로, 주로 무화과, 대추야자, 건포도, 건과류 등을 섞어 진흙 색 소스를 만들어 먹는다. 구운 달걀도 애굽에서 벽돌을 굽던 고역을 기억하며 먹는 것이다. 포도주는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자유와 해방을 맞게 된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다.

유월절 만찬은 넷 잔의 포도주를 기준으로 출애굽 사건을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속에서 재현하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포도주잔은 일종의 전식(에피타이저)이다. 만찬은 어머니가 양초나 램프에 점화하면서 시작된다. 아버지가 포도주 첫 잔을 따르고 축복 문을 낭송하면, 가족들이 첫 잔을 마신다. 그 후에, 물로 손을 씻는데 일종의 정결 예식이다. 그리고 쓴 나물을 소금물에 찍어 먹는데, 소금물은 눈물을 의미한다. 쓴 나물을 소금에 찍어 먹으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얼마나 눈물 나고, 쓰디쓴 고생이었는지 상기한다. 그리고 무교병(마짜)을 잘라서 접시에 올려둔다. 예수님

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발을 씻기신 타이밍이 언제일까? 어쩌면 첫 번째 잔을 마시고, 물을 부어 정결 의식을 행하는 타이밍 일 수도 있다. 제자들이 손에 물을 뿌리는 의식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담아 오셔서 손이 아니라,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그러나 그것은 단지 의식(RITUAL)이 아니라, 그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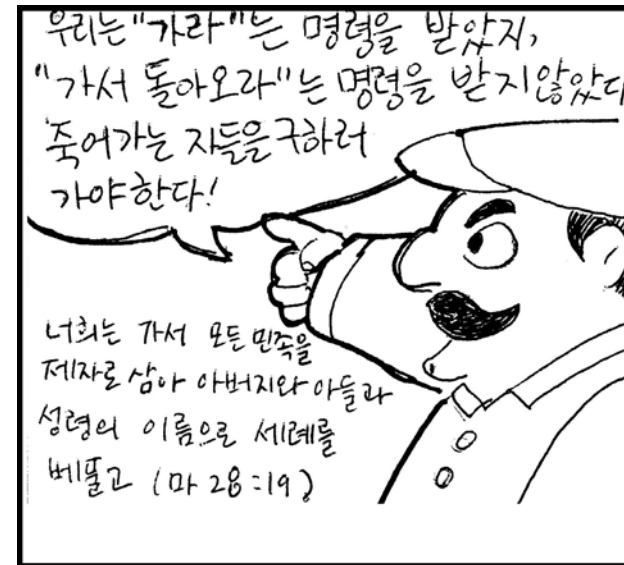
두 번째 포도주 잔은 과거를 기억하는 순서이다. 만찬 참석자 중 가장 어린 사람에게 만찬 인도자가 질문한다. 가족인 경우엔 아버지가 막내에게 질문했으니까, 최후의 만찬에선 아마도 예수님이 가장 젊은 요한에게 질문했을 것이다. 인도자는 출애굽 사건을 상세하게 설명한 뒤에, 두 번째 잔을 따라준다. 열 재앙을 낭송할 때마다 참석자들은 포도주를 입에 머금었다가 접시에 뱉어낸다. 하지만 마지막 재앙 후엔 찬송을 부르고 남은 포도주를 마신다.

세 번째 포도주는 현재를 축복하는 순서이다. 성경의 스토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타이밍이다. 인도자는 축복 기도를 하고 무교병을 나눠준다. 예수님도 이때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을 것이다. 그리고, 쓴 나물이나 무교병을 하로셋 소스에 찍어 먹는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가롯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신 타이밍과 잘 들어맞는다. 예수님이 뜬금없이 가롯 유다에게 떡을 주셔서 공개적으로 그를 배반자로 지목하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딱 걸린 유다가 당황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원래 무교병을 찍어 먹는 순서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실은, 유다 혼자 마음에 찢려 도망 나간 것이다. 결국, 유다는 유월절 만찬의 주메뉴인 어린양을 먹지 못했으니, 제대로 유월절 식사를 한 것이 아닌 셈이다. 그 뒤에, 어린양을 먹기 위한 축복 문을 낭송하고 구운 양고기 식사를 한다. 식사 후에 세 번째 잔(구원의 잔)을 마신다. 예수님이 잔을 높이 들고 십자가의 피와 포도주를 연결하신 것이 이때일 것이다.

네 번째 포도주는 미래의 잔이다. 유월절 식사가 끝나면 방문을 열고 네 번째 포도주를 가득 채운다. 이 잔은 엘리야의 잔이라 부르기도 한다. 말라기에서 메시아가 도래하기 전에 먼저 올 것이라고 예언된 엘리야가 오기를 고대하는 노래이다.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올 테니까.... 그런데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유월절을 기리고 엘리야를 기다렸지만, 막상 엘리야로 왔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를 죽였다.

마지막 순서는 찬양이다. 유월절 만찬을 마치면 대략 자정이 된다. 만찬을 마친 사람들은 저마다 지붕 위 옥상에 올라가 시편 찬송을 불렀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최후의 만찬 후에 찬송을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갔다. 이 찬송은 성찬을 만드신 것을 감사하는 찬양이나 산상 기도회 올라가는 준비 찬송이 아니라, 유월절 만찬의 마지막 찬양이었다. 이렇게 유월절 만찬은 끝이 났다.

글 김인환 목사 (동. 서부 평원, 선교 위원회 담당)



글, 그림 임명진 (산호세 평원, 2부 호산나 찬양대)

익숙함을 벗어나 유일한 청중되시는 분을 생각하십시오

(사무엘하 6:1-23)

긴 겨울을 잘 보내셨나요? 새로운 출발과 만물의 소생을 알리는 봄이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나뭇가지에도 새싹이 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이 자연의 순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탄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반복되는 자연의 흐름에 너무나도 무덤덤해진 마음으로 감사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감동 없는 무덤덤함, 영혼 없는 매너리즘에 빠진 일상의 삶은 얼마나 빈곤한지요.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일상에도 이런 매너리즘은 자주 찾아옵니다. 그리고 권태에 빠진 무덤덤하고 수동적인 예배자들이 되어 버립니다.

사무엘하 6장에 등장하는 '웃사'의 죽음을 생각하면 참 깊은 질문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큰 행사를 주관하다가 갑작스레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6절에 보면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는 바람에 웃사가 법궤에 손을 대어 잡는데 불행히도 그는 바로 죽사하고 맙니다.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태를 막아 보려고 하다가 이런 비극을 당하니요. 안타깝지만 그의 죽음을 묵상해 보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웃사의 행동에 깔려 있는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3절을 보면 법궤는 '새 수레'에 실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블레셋식 최신 기술인 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나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 없는 일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말을 인용해 봅니다. "웃사는 주제넘게 하나님 관리 책임자 행세를 하려 했던 사람이었다. 웃사는 하나님을 상자에 넣어 가두고 세상 오물이 묻지 않도록 하나님을 지킬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나서는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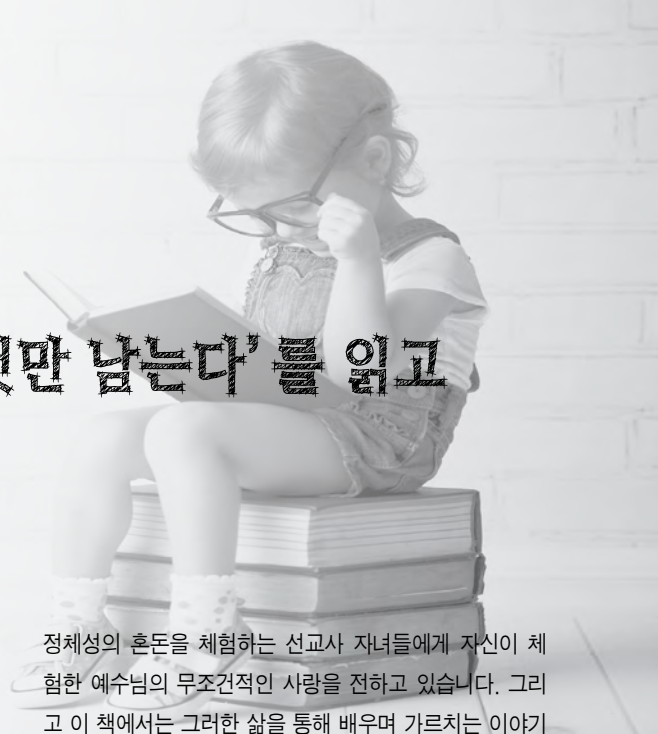
위기상황에 벌어진 웃사의 행동은 반사적인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 속에 벌어진 그 행동의 동기에는 웃사의 매너리즘과 교만함이 깔려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오랜 시간 동안 법궤를 주관하며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그의 망상이 묻어 나와 표출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나 아니라 어느덧 자기가 법궤의 주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소들이 뛰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도 법궤가 떨어지려 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단지 소가 뛰었을 뿐입니다. 말이 뛰는 것과 소가 뛰는 것은 다릅니다. 수레의 높이는 지상에서 그리 높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가 뛰었다고 높이와 너비 60cm의 궤가 떨어질 리는 없는 것입니다. 법궤의 높이보다 더 큰 웃사는 지금 법궤를 내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어느덧 더 높게 서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오랜 세월을 찬양 인도자로 예배담당 목사로 보낸 과거가 있습니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선곡했으며 찬양팀 리허설을 진행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새에 그 익숙함이 주는 매너리즘에 깊이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적인 예배 속에서 의식하지 않았지만, 첫 마음을 잃어버린 작은 '웃사'처럼 살았던 과거가 생각나 부끄럽습니다. 익숙함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편안한 감정을 선사합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이 어느덧 우리를 잠식하면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며, 나 자신이 주인이 되는 무서움에 빠지게 됩니다. 익숙함이라는 도구가 우리를 갇아먹는 양날의 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익숙함이 주는 매너리즘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반복되는 동일한 찬양에서도 신선하고 감사가 넘치는 첫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첫 마음을 평생토록 간직하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고 불렀던 감격의 찬양이 몇십 년 지속되게 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서 우리는 한가지 팁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을 보면 복권된 법궤가 다윗 성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좋아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기뻐하다가 웃이 벗겨져 왕의 체통을 잃어버린 다윗을 비난하는 미갈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BEFORE THE EYES OF HIS SERVANTS' FEMALE SERVANTS)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의 아내이기 보다는 사울의 딸인 미갈은 오로지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응하는 21절의 다윗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는 여호와 앞에서(BEFORE THE LORD) 한 것이니라." 다윗은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 눈앞에 어떻게 보일지를 훨씬 더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너무나도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스 기니스의 책 (소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오직 한 사람의 청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생의 무대에서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연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청중이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어떤 청중'을 갖고 있는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소명에 귀 기울이면서 산 인생은 다른 모든 청중을 밀어내는 단 한 분의 청중, 곧 유일한 청중 앞에서(FOR THE AUDIENCE OF ONE) 산 인생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인생의 단 한 분의 청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행한 우리의 삶만이 유일한 가치가 있습니다. 단 한 분의 청중이신 그리스도, 그를 위한 노래를 불러 보세요. 그런 찬양을 불러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음 떨어진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까 하는 고민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샬롬~

글 박성호 목사 (북부 평원, 화요 여성 예배, 신앙 위원회 담당)



‘삶으로 배우는 것만 남는다’를 읽고

지난주, 임마누엘 도서실에서 빌려온 ‘삶으로 배우는 것만 남는다’(김요셉 목사 저)라는 책을 읽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려 받아보니 임마누엘 교회 편집부라고 하시면서,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은혜를 받고 있어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책 읽기는 무척 좋아하지만 제 생각을 글로 조리있게 표현하는 일은 잘 못하는 사람이라 ‘나는 글을 잘 못 써요.’라고 했지만 편집부에서 도와 주시겠다고 자꾸 권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떠올린 책이 리처드 포스터의 “기도”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오래 전에 우연히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빌려 읽은 후 너무 좋아서 열린 한권을 다시 오더해서 제가 즐겨 읽어 오던 책입니다. 은혜로운 구절마다 밑줄을 그어가며 읽은 내 영혼의 교과서 같은 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침 “삶으로 배우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을 은혜롭게 읽고 있을 때 편집부에서 어찌 전화를 주었을까?하는 생각이 미치자, 이 책에서 은혜받은 말씀을 임마누엘의 믿음의 식구들에게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 김요셉 목사님은 1994년 허허벌판이던 수원시 원천동에 설립한 중앙기독교학교와 1995년에 개척한 원천교회를 통하여 다문화 가정 어린이, 오해와 놀림을 받는 장애우,

정체성의 혼돈을 체험하는 선교사 자녀들에게 자신이 체험한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그러한 삶을 통해 배우며 가르치는 이야기와 그 안에서 느끼며 배우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삶과 학교에서 만나는 학생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가르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야기가 생생하게 담긴 책입니다. 그는 “목회는 배운 것을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삶을 목회자와 교육자로서 교인들과 학생들에게 가르치며 특히, 이삭의 아굴에 대한 축복, 요셉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 등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언급되듯이 스킨십(신체 접촉)과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에게 기도하며 축복해야 함을 부모들에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미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의 사이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뱃 속까지 한국인의 정신을 가진 김요셉 목사님은 한국인의 모습을 가졌지만, 철저한 미국인의 문화와 언어를 가진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여 3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존경’이라는 모국어와 가진 남성과 ‘사랑’이라는 모국어를 가진 여성의 부부 관계에서 말씀과 기도로 부딪혀 나가야만 했던 많은 배우의 양식들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 이민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네 부부들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김요셉 목사님의 교육은, 사랑이란 예수님처럼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관계를 통해서 자라게 하는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이 학교의 선생님들은 직접 삶을 통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선교여행에 관한 이야기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매해 방학이 되면 선생님들이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이들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중 캄보디아의 사정이 어려운 학생 한 명을 입양하여 파워스 장학금이라 이름 지어진 장학금을 주며 가르치고 키우는 이야기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칼 파워스 선생님은 6, 25 참전 용사로 미군 부대에서 지내던 중, 같은 시기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 보이로 있던 ‘빌리’라는 소년을 미국에 데리고 가 공부를 비롯한 모든 뒷바라지를 하며 키우게 됩니다. 자신은 두메산골에서 초등학교 교사와 교장을 하며 수세식 변소도 마련되지 않은 집에서

가난한 삶을 살면서 가난한 나라의 소년을 공부시키고 양육하며 튼튼한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그 씨앗이 커서 큰 열매를 거두게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침례교의 거목이신 김장환 목사님이며, 이 책의 작가 김요셉 목사님은 바로 김장환 목사님의 장남입니다. 김장환 목사님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의 통역자였고 극동방송을 설립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의 아들이신 김요셉 목사님은 기도하는 학교이며,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가진 기독교 세계관을 추구하는 중앙기독교학교를 통해 “이것이 우리 학교가 내는 소금 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그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또 그다음 세대로 맺히지고 또 맺히질 열매를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총과 진리에 감격하며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앗은 영광없이 뿌리는 대로 그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맞으며 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씨앗을 뿌리거나 하였는가?” “심기나 하였는가?”라고 생각해볼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생각해보건데, 주님은 제가 몸담고 있는 임마누엘 교회의 에녹 평원을 통해 많은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분들은 모두들 아름다운 씨앗들을 심는 분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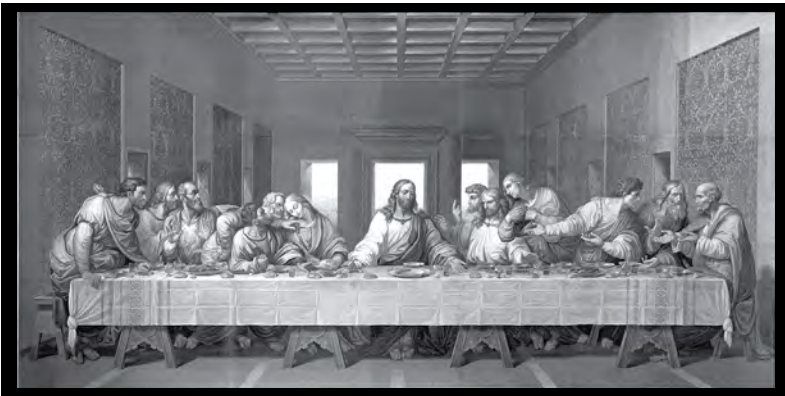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또한, 올해에도 하나님과 약속한 몇 가지 사명들을 모퉁이에서 조용히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주시기를 새벽마다 간구합니다.

글 조세일 권사 (에녹평원 러시아 목장 부목자, 베데스다 돌보미팀, 북한 선교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2017년 1월 겨울방학에 우리 가족은 예전에 잠시 살았던 밀라노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지 못해 마음에 내내 두었던 산타마리아 델라 그라치에 성당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보기 위해, 추운 겨울 아침 떨리는 몸과 설레는 마음으로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림을 보러 가시려면 가기 전에 미리 그룹 투어 예약을 하시는 게 필수입니다.) 성당 앞에는 삼삼오오 그룹 투어(한 그룹당 10명 남짓)를 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저희도 가이드를 찾아 그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미리 예약한 시간에 20명 남짓만 들어가고 약 15분 동안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스개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까칠한 작품'이라고도 합니다. 투어 가이드분이 나눠준 오디오를 귀에 꽂고 드디어 시간이 되어 줄을 섭니다. 그림을 보기 전에 보안을 위해 유리로 된 두 번의 클리어 룸을 지나게 되면서 그림을 향한 설레임과 기대는 한껏 부풀어 오릅니다. 마지막 클리어 룸이 지나고 문이 열리자 어디선가 향긋한 꽃 냄새가 납니다. (저만 느끼는 냄새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벽에 그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지막 만찬을 마주하게 됩니다. 너무 떨었던 탓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이유였는지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림을 감상하도록 앉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앉았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보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가까이서 빨리 보려고 앞으로 가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림을 찬찬히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불을 타고 흐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고전 11:25)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가 가슴에 꽂힙니다.

그리고 조금의 여유를 준 후에 바로 가이드의 설명이 들어갑니다.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그 시대에는 벽에 그림을 그릴 때 프레스코화가 일반적이었으나(벽을 얇게 뜯어낸 뒤, 회반죽을 발라 마르기 전에 빠르게 그리는 그림) 다빈치는 빠르게 그려야 하는 프레스코화 대신 벽에 칼슘 액을 입히고 그 위에 유화로 그리는 조금 더 생각하며 정성을 들여 세심히 그릴 수 있는 템페라 기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림에 손상이 쉽게 되어 후에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요.)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5년 동안 그리면서 산타마리아 델라 그라치에 교회의 수도원분들의 식당이었던 곳을 고려해서 일부러 예수님과 12 제자가 일렬로 나란히 식탁에 앉은 모습을 통해 수도하는 분들이 마치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했다고도 합니다.

직접 본 그림은 11번의 복원 작업 때문이었는지, 영터리 복원작업들이 망쳐놓은 물감을 떼어내서인지, 전체적으로 은은한 파스텔색이 몽환적이고 신비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표현하고 있는 제자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나 예수님의 심정을 모른다면 그저 아름답고 평온한 저녁 식탁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그림에는 총 13명이 그려져 있는데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제자들이 양쪽으로 6명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림의 왼쪽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선교를 갔다가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지고 순교한 바돌로매, 그래서인지 다빈치는 그림에서 그만 전신을 그렸다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는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베드로의 동생이자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그림에서 칼을 들고 있는 베드로, 예수님과 같은 빵을 집으려고 손을 내미는 모습의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롯 유다, 예수님께서 많이 아끼시고 좋아하셨던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제자 중에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임 당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만찬 후에 겻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며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 라고 기도하시며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요(눅 22:44).

또한, 예수님의 왼편에는 의심이 많아서인지 그 손으로 예수님의 뚫린 손과 허리를 찔러보려고 그러는지 손가락을 들고 있는 도마, 양팔을 벌린 채 조금 화난 표정을 하고 있는 요한의 형, 야고보, 그리고 무언가 불쌍한 표정으로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는 듯한 빌립, 그 옆에는 마태복음을 쓴 세례요한 마태, 그리고 유다 다대오,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을 반대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시몬의 순서로 그려져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을 직접 보면서 저를 위한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고전 11:25)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제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글 한연정 (동부 평원 브라질 목장 부목자)

사진 출처: <https://italy4real.com/tours/leonardo-da-vinci-milan-tour/>

올바른 기독교 용어

1. 기도와 관련된 용어

1. 당신 ⇒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총으로...”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과 같이 하나님을 ‘당신’이라 부르는 것을 종종 본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는 분이므로 2인칭이다. 우리말 2인칭 ‘당신’은 결코 존대어가 될 수 없다. 다만 3인칭에서는 ‘당신’이 극존대어로 쓰일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3인칭이 될 수 없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므로 2인칭에 해당하므로 기도할 때 ‘당신’이란 호칭은 바람직하지 않다.



2.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를 끝냈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와 같이 동사 ‘기도하다’의 시제를 현재형으로 써야 하는데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와 같이 과거형을 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5분이나 10분 전에 기도를 시작해서 간구한 모든 말들은 문법적으로는 이미 과거나 현재완료가 되므로 ‘기도하다’의 과거형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도(祈禱)는 그 핵심이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의 간구이다. 간구의 내용은 소원이며 소원은 미래 지향적이다. 이러한 미래 지향적인 소원, 즉 우리의 바람을 ‘기도하였습니다’로 끝낼 수는 없다. 간구의 내용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영원한 현재성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기도의 마무리는 과거가 아닌, 현재로 끝내는 것이 옳다.

3. 지금도 살아 계신 하나님 ⇒ 사용 불가

기도 중에 “지금도 살아 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 아니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도 살아있다는 표현은 ‘언젠가는 살아있지 못할지 모른다’ 또는 ‘아직도 살아 계시는 하나님’ 등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극히 제한하는 표현이 되기 때문이다.

11. 장례와 관련된 용어

1.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이라는 표현은 우리 장례문화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용어이기에 누구나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고 크리스천들도 종종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명복’이라는 용어는 기독교에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 말은 불교 전용어로 불교 신자가 죽은 후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을 명부라 하는데 거기서 받게 되는 복을 가리킨 말이다. 곧, 죽은 자들이 복된 심판을 받아 극락에 가게 되기를 바란다는 불교의 내세관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우리 교회에서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든지, 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말로 유족을 위로함이 마땅하다.

2. 미망인 ⇒ 고인의 부인

미망인이라는 용어는 순장제도에서 유래된 말이다. 순장이란 어느 특정한 사람의 죽음을 뒤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강제로 죽여서 먼저 죽은 시신과 함께 묻는 장례풍속을 말한다. 이러한 풍속은 고대 중국의 은나라와 이집트를 비롯해 아프리카 지역에서 성행했다. 특히 인도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따라 분신자살하여 순장되는 ‘사티’라는 풍습이 1829년 법으로 금지되기까지 존속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신라 22대 지증왕 3년(주 후 502년)에 왕명에 의하여 순장이 금지되기까지 이러한 제도가 존속되었다. 이런 순장 제도가 성행할 때나 쓰일 수 있었던 ‘미망인’이라는 용어의 뜻을 풀어 보면 ‘남편이 죽었기에 마땅히 죽어야 할 몸인데 아직 따라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여인’이라는 뜻이다. 이 용어의 뜻을 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는 사용할 수 없는 말임을 깨닫게 된다.

3. 영결식 ⇒ 장례예식

인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진행하는 예식을 칭하는 용어로 ‘영결식’, ‘고별식’, ‘발인식’ 등 다양한 명칭이 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담고 있는 뜻이 우리의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영결식은 ‘영원히 이별한다’는 뜻이며 고별식은 ‘작별을 고한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교리와 부활 신앙이기에 이러한 표현은 적당하지 못하며, 발인식은 시신을 담은 상여가 집에서 떠남을 뜻하기에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한다. 이러한 용어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이제는 ‘장례예식’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해야 한다.

4. 삼우제 (三虞祭) ⇒ 첫 성묘 (省墓)

우제(虞祭)란 장례를 마친 뒤에 지내는 제사로서 우리의 장례문화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다. 이때의 제사는 세 번 갖게 되는데 그것을 초우(初虞), 재우(再虞), 삼우(三虞)라 한다. 이 중 아직도 삼우제라는 이름은 교회 안팎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의 삼우제는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묘를 찾아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관례로 되어 가고 있다. 성묘란 시체를 묻고 뒤편을 만드는 일, 즉 산역(山役)이 잘 되었는지 살피는 것이 주목적이다. 아직도 매장 문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한국 교회에서는 가족들이 3일 만에 성묘를 하는 일이 보편적이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삼우제라는 이름을 ‘첫 성묘’로 부르는 것이 매우 적절한 용어이다.

자료 출처 : 『변경된 새로운 기독교 용어』

_ 한국 장로교 출판사
편집부 정리 및 편집





물 반 고기 반

90년대 초 아내와 나는 오스틴에 사는 유학생 부부였다. 학생들은 가난하였고 유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한인교회는 더 가난하였다. 교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교회의 교육관을 빌어서 예배를 드렸다. 부모들은 큰 방에서, 주일학교와 아기들은 작은 방에서. 영어가 서툰 유학생이 한글이 서툰 아이들을 가르쳤고, 잘 통제가 되지 않아 산만했다. 모이면 먹기를 좋아했고, 냄새가 나고, 떠난 자리가 아깝지만 못한 이유로 종종 '주인' 교회의 경고를 받았다.

반면에 미국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본당은 조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웠다. 부자 주인과 가난한 세입자는 그렇게 함께 살았다. 당시에는 교육관을 사용하게 해주었던 '주인' 교회의 심정을 헤아려 보지 못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지금 시각이 바뀐다. 자신을 발견한다. 가난한 유학생들은 부자 크리스천이었고, 부자 주인은 가까이 있는 천국을 부러워하였을 것이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25년 전을 재구성해 본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비어가는 교육관을 바라보는 목사님의 마음이 안타깝다. 어느 날 젊은 동양인 목사가 건물 사용하기를 청(請)한다. 고아를 돕는 심정으로 허락한다. 그런데 한 주가 다르게 사람 수가 늘어나더니 어느 날 보니 행하던 교육관이 비좁을 만큼 사람들이 들어차 예배를 드린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물 반 고기 반'이다. 아이들의 수와 어른의 수가 거의 같다. 공부에 지친 유학생들이 열심히 아기를 낳아 교인 수를 늘린다. 어떤 교회사(史)에서도 보지 못한 모습이다. 친숙하지 않은 김치 냄새에서 마력(魔力)이 느껴진다. 이러한 힘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돈 빼고는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내일이 오늘보다 좋을 것이라는 확신에 찬 '젊은 교회'의 모습이다.

불행히도 한인교회들이 고령화되면서 유럽이나 미국 교회의 전철을 밟고 있다. 우리는 대학진학 후 교회를 떠나는 자녀의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는다. 모태 신앙으로 18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자녀도 예외가 아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에 나는 회개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다.

나는 그 젊은 교회의 일원이었던 큰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다. 준비가 미흡한 월요일 시험을 위해 주일 예배 시간을 탐내었고, 힘든 친구를 돕기보다 자신을 돌보기를 원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는 성급함을 보여주었으며, 하나님의 결정에 참견하는 만



용도 보여주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은 나를 본받아 하나님도 예수님도 없는 '편리한' 신앙생활을 하였고, 효율을 중시하는 실리코밸리의 삶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자랐다. 18세가 되어 대학으로 떠났고, 그리고 교회도 떠났다. 나는 꿈을 심었고 그 꿈을 거둔 것이다.

나의 잘못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들을 사랑하신다고 믿는다. 힘든 START-UP의 삶을 통해 시련을 주셨고 피조물의 한계를 알게 하신 이면에 주님의 사랑이 보인다. 세월이 지난 지금 나는 그 아들이 회심(悔心)해서 크리스천을 만나 결혼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유아세례를 받기 위해 본당에서 아기를 안고 서 있는 모습도 상상해 본다. 주신 자녀를 잘못 가르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다윗의 회개를 들으셨던 주님께 기도를 올린다.



주님, 저의 아들이 온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제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너의 젊은 시절을 닮은 ‘아버지’들을 만나 너의 실패담을 나누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성령 충만하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에 자녀 양육의 지혜가 있다. 네가 믿는 바를 자녀가 믿게 하라. 말이 아닌 행(行)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고, 그를 이루어갈 힘도 함께 주셨다. 우리는 조카의 학비를 벌기 위해 물지계를 질 수 있었던 민족이었고, 자녀 교육을 위해 기러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사랑은 무한히 크지만, 설익은 사랑이 교회의 고령화를 재촉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보았다. ‘아버지’가 믿지 않는 하나님은 자녀도 믿지 않는다.

아기의 울음소리, 복도를 질주하는 아이들의 발자국 소리, 그리고 조잡한 크리스마스 연극 무대. 이러한 것들은 ‘젊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모습이다. 우리 세대에서 이러한 것들이 사라진다면 이는 우리의 책임이다. 가정에서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이 예수님의 참사랑을 닮아갈 때 ‘젊은 교회’의 역사는 재현(再現)될 것이다. ‘물 반 고기 반’의 모습으로...

글 김영곤 (산호세 평원 모로코 목장 목사, ‘아버지’의 자녀 양육 소그룹 모임 리더)

하하호호 웃어요

1초만 기다려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 10억을 하나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야 푼돈이지”
 “그러면 천 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야 1초에 불과하지”
 그러자 이 사람은 하나님께
 한 푼만 달라고 애원을 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초만 기다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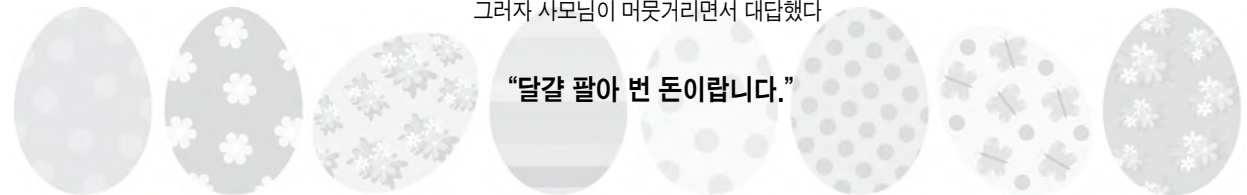


달걀의 비밀

어떤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다.
 신혼 방에 들어서서 짐을 정리하다가
 사모님의 가방에서 조그만 통을 발견했다.
 궁금해서 사모님께 물었다.
 “이게 뭐여?”
 그러자 사모님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절대 열어보시면 안 돼요, 알았죠?”
 전도사님은 궁금했지만, 워낙 완강하게 말리는 통에 알았다고 약속했다.
 그런 후 잊어버리고 세월이 20년이 흘렀다.

전도사님은 목사님이 되었다.
 20년간 목회하면서 어느 날 이사를 하게 되어
 짐을 정리하다가 20년 전의 그 통을 우연히 발견하였다.
 목사님은 속으로 이제는 20년이 지났는데 설마 괜찮겠지...
 하면서 살짝 통을 열어 봤다.
 그런데 그 안에는 현금 200만 원과 달걀 3개가 들어 있는 게 아닌가
 너무 궁금해서 사모님께 사실을 말하고 물었다.
 “도대체 이게 뭐여?”
 사모님은 절대 열어보지 말랬는데
 열어보았다고 원망하면서
 마지못해 이야기해 주겠다고 했다.
 “좋아요. 이제는 말씀드리죠.”
 “당신이 저와 결혼 후에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제가 졸음이 오면 그때마다 달걀을 하나씩 모았어요.”
 그러자 목사님은 매우 기분이 좋았다.
 “그래, 20년 동안 내가 3번밖에 졸음이 오는 설교를 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 돈은 뭐지?”
 그러자 사모님이 머뭇거리면서 대답했다

“달걀 팔아 번 돈이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저는 모태신앙으로 나름대로 민노라 하며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20년 전 미국에 혼자 이민을 오면서 혹독한 이민생활로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죄로 인한 정죄함과 우울증으로 삶의 의욕을 잃고 긴 세월을 길 잃은 양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서 믿는 아내를 만나 두 아이를 낳고 곁보기엔 큰 문제 없이 잘살고 있었습니다.

2013년 복음이 실체가 안된 나 자신을 보며 나도 구원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듣고 처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회개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세례는 받았지만, 회개 없이 살다가 그 무렵 거듭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거듭난 은혜로 예배와 말씀이 너무 좋아지게 되는 나 자신에 놀라며 말씀 순종과 죄에 대한 성령님의 책망도 아주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죄는 죄라는 인식이 없었기에 육체로 나타나는 죄만 끊으려고 열심히 죄를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를 이길 수 없었고 결국 죄가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몰랐던 죄의 세력을 실감하는 동시에 구원까지 흔들리는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택함 받은 자가 아닌가?' 생각하며 그냥 죄와 타협하며 한동안 살았지만, 죄와 타협은 더 정죄함에 빠지게 했고 하나님과 거리만 더 만들 뿐이었습니다.

말씀 묵상으로 지식은 계속 쌓여 갔지만, 여전히 어릴 때부터 죄의 종노릇하는 삶은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 시작되는 미움, 짜증, 음란, 우울, 무서움, 염려... 등이

런 죄가 내 마음과 생각에 수시로 들어와 나를 죄짓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죄는 더 살아나고 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죽은 자로 드러났습니다. 마음에 죄가 해결 안 되니 육체의 죄는 시간과 여건만 맞으면 폭발하여 나왔습니다. 어느 날 목자님의 권면으로 생명의 삶을 듣게 되었지만, 이런 상태로 변화는 꿈도 못 꾸었습니다. 모태신앙의 힘으로 졸업은 잘하게 되었지만, 그날 밤 졸업 사진과 수료장을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정말 정신이 나갔습니다.

또한 나를 미치게 하는 죄가 있었는데 그것은 음란이었습니다. 생각으로 들어오는 음란의 죄가 마음마저 순식간에 장악하면 속수무책으로 넘어졌습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오는 죄의 생각은 아무리 노력해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낙심과 영적 우울함에 빠져 셀 수도 없이 회개한 죄를 또 회개하는 반복 속에 드디어 터졌습니다. '예수님! 그냥 제발 저를 죽여 주세요. 전 이대로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저의 이 육신의 몸이 죽어야 여기서 해방될 것 같아요! 지금 심판해 주세요.' 하며 저의 상한 마음과 함께 통회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5일 후, 모든 소망을 잃은 채 찬양과 말씀을 듣는 중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갈 2:20)" 라는 말씀이 스쳐지나 가는데 주님이 저의 마음속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석아! 너 죽어 달라고 했지! 내가 널 벌써 죽였어. 죄짓는 옛사람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였어. 넌 지금껏 그 사실을 모르고 안 믿고 속고 있었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전에도 많이 들었지만, 그날은 살아서 예리한 칼처럼 다가왔습니다. 말씀이 실체가 되는 기쁨과 함께 죄짓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지나갔으므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마귀사단이 넣어준 죄 된 육신의 생각과 습관이 내 것이라 알고 살았기에 자기부인은 흉내도 못하며 죄에 꼼짝 없이 잡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못된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죄 짓게 하여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롬6:6)

지난 몇 년 동안 죄와 율법의 종노릇 하며 두려움과 정죄감에 허우적거렸습니다. 나의 힘으로 죄를 이기고 순종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그건 교만이었고 주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었고 부활 승천하여 모든 죄를 이길 능력으로 내 마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통치하는 천국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이미 거듭남으로 내 안에 왕으로 오신 주님을 단 한 번도 불러보지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멘! 믿습니다!' 하였지만, 밖에 나오면 또 내 생각과 힘으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려고 하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이었습니다.

이제 죄에 대해 죽은 저는 더 이상 죄를 참지 않고 예수님이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했듯이 저도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사단아, 음란, 짜증, 걱정하는 옛사람은 벌써 예수와 함께 죽었어! 이제 더 이상 안 속아! 난 말씀을 믿어! 사단아, 떠나가!' 라고 호통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약 4:7) 도저히 꿀 수 없었던 죄도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하니 3년이 지난 지금은 생각도 안 날 뿐 더러 예수님을 죽인 그 죄가 저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육신의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전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부르며 의지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저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 3:6)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 지기에 오늘도 죄와 사단은 믿음으로 대적하여 이기고, 말씀 순종은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순종되어지는 은혜만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글 황경석 (산호세 평원 파푸아뉴기니 목장 목사)

신앙의 사춘기

미국에 와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최근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되기까지의 삶 속에서 변화된 제 신앙과 기도에 대한 소고입니다.

학위를 한국에서 마친 후 제 지도교수님 덕분에 University of Maryland 라는 곳에서 박사후과정으로 좀 더 연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꿈에 부풀어 왔지만, 저를 반겨주는 것은 눈보라였습니다. 그때가 2010년 1월이었는데 마침 기록적인 적설량과 한파가 동네를 덮칠 때였습니다. 제설차가 아무리 다녀도 눈은 계속 쌓여 제 키만큼 올라왔습니다. 모든 관공서와 상점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다더라도 사실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오로지 도보뿐이었습니다. 인터넷과 전기가 끊기고 설상가상 냉장고의 음식들이 동이 나 이제 갓 미국에 와 모든 게 낯설고 어설플 저의 낯을 잃게 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느린 학교행정은 더 느려지게 되어서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는 날짜도 미뤄지곤 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직원들을 뒤통에서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는 있었지만, 사이는 소원해져 그다음부터는 저에게 비협조적으로 굴었고요. 아무튼, 호기롭게 시작한 미국 생활의 시작은 불편함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그곳에 있던 한 유학생 동생이 저를 도와주면서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학부 이후로 다니지 않았던 교회도 가게 되고 또 성경공부 모임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해가 가고 연구가 진척되나 싶었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형편없었습니다. 논문과 제안서는 계속 거절되고 추가 펀딩도 불투명해져 마음은 초조해져만 갔습니다. 사실은 한국의 예정된 직

장도 버리고 또 약혼자에게는 무작정 기다려 달라고만 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임용도 되고 자리를 잡아 가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경력 쌓을 시간을 낭비하고, 결혼할 사람을 외롭게 만들고, 특히 저를 믿고 지원해주신 분들께 실망만 안겨 드렸던 자괴감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괴로운 마음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가정교회 모임을 나가게 되면, 기도를 나눌 때 눈물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정말 곤경에 처한 분들이지요. 그분들은 저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사정은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제 신앙심은 약해져만 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독실한 신자였던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도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는 더 이상 다닐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했던 것처럼요.

결국, 펀딩이 끊기고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걱정하실 부모님께 말씀도 못 드리고 정말 궁색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마음은 흥분해지더군요. 그 뒤로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일을 하고 가끔 성경공부 모임에 가서 혹은 성경에 돌파구가 될 해답이 있지 않을까 찾아보고, 독실한 신자였던 옆 연구실 홍콩 친구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 하신 말씀에 기도 제목을 나눌 땐 영어로, 기도할 때는 각자의 언어로 했죠. 기도를 시작한 지 몇 개월 지난 후부터 거짓말같이 사정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분 문제, 결혼 문제, 펀딩 문제가 해결되고 거절당했던 논문들은 조금 늦었지만, 다시 출판되었고요. 2세를 갖게 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처우가 더 나은 직장을 이곳에서 얻게 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했던 홍콩 친구도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위의 얘기를 풀어내자니 저의 나약함과 무지함을 드러낸 것 같아 참 부끄럽습니다. 방향 후 제가 다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주변 신실하신 분들의 영향 덕분입니다. 위의 교수님들, 유학생들, 외국 친구들, 전부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에서 만난 모든 분들은 저에게 항상 먼저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영향력 가까운 곳에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추천하신 덕분에 부족한 제가 1부 찬양팀에서 봉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덕분에 그전보다 많은 찬송가와 복음성가의 가사를 음미하게 되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봐어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 폭풍우 흑암 속 헤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

소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스스로 되뇌면서 기도가 됩니다. 1부 드리러 오시는 분들은 주로 2부/3부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과 시니어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부르시는 찬송이 합창이 되어 분당에 울려 퍼질 때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것이 그분들의 간증이고 또 성숙한 신앙심에서 나온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현우가 자라서 난관을 마주하면 아버지로서 울바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거면 왜 낳았어?” 소위 막장 드라마에서 나올법한 말을 우리 아이가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기도한 것 같아 회개합니다.

저는 마치 사춘기를 한 번 더 겪은 것 같습니다. 신앙의 사춘기예요. 삶에는 언제든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세상이란 게 원래 불공평하고 사람이 악한 것일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이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낙망하지만, 예전과는 마음가짐이 조금 다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그저 최선을 다하고, 어려움에 맞설 힘을 주시사 기도합니다. 때에 맞추어 준비되었을 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글 배정훈 (북부평원 인도네시아 자바 목장 소속, 1부 찬양팀 키보드 담당)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

오래전, 남편의 유학으로 보스턴에서 살 때였습니다. 원하던 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고, 또 첫아들을 낳고 많은 분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시작한 유학생 아내의 삶은, 낯선 장소와 언어 부족으로 인해 막연한 두려움과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결혼선물로 받은 성경책이 생각났고, 의미가 있어 가지고 왔는데 펴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 가는데 죽보가 어렵고, 신약 마태복음을 읽어도 죽보가 어려워 중단했습니다. 한글이라서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학교는 일 년 후, 상대평가로 10%의 학생을 탈락시켰고, 남편도 수업시간에 발표를 못 하거나 하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때 지인께서 자주 오셔서 아기도 봐 주시고 음식도 챙겨 주시고 돌에 필요한 떡도 해주시면서 함께 성당에 가자고 권유하셨습니다. 집에서 TV를 보는 것보다는 나를 것 같아서 남편과 함께 성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졸업이 가까이 다가오자 영세를 받을 것을 권면하셨지만, 확신이 없어서 성당을 나가지 못하고 중단했습니다.

그 후에 뉴저지에 있는 직장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많은 주재원들이 살고 계시고, 한국 분들도 많았습니다. 매 주 화요일에는 놀이터에 아이들과 엄마들이 나오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한 분이 집을 오픈하시고 성경공부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교회 여전도사님도 오시고 CCC 10단계 교재로 성경공부를 했습니다. 한 번도 성경을 읽어 본 경험이 없었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매주 화요일에 함께 모여 공부하게 되었고, 교회를 왜 가야

하는지, 사람이 사는 목적 등등... 매일 배우고 숙제하고 요절을 암송하고, 배운 만큼 남편과 나누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면 남편은 그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영국에서 어린 시절 학교도 다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영어로 외우고 있었고 어느 책에도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금씩 성경의 맥을 짚어 주니, 성경이 연결되고 계속 읽어지게 되었습니다.

둘째의 임신으로 병원에서 결핵 검사를 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오자 x-ray를 출산 전에 반드시 찍어야 한다고 해서 배를 가리고 찍었는데 결핵은 아니었습니다. 기형아에 대한 두려움으로 유산도 생각했지만 두려웠습니다. 남편은 한 과목 때문에 한 학기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회사의 양해로 한 학기 더 공부를 했습니다. 은행에 연임이 안 되신 시아버님께서 비용을 주시기가 어려웠고, 처음으로 어떡해야 할지 고민이었는데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가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이를 잘 낳아 키우겠다고, 남편의 남은 공부를 잘 마치게 해 달라고... 필요한 물질은 구하지도 않았는데 sign up bonus와 주재원정착비를 무이자로 loan 해 주시고 10개월 동안 갚는 것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둘째는 예정일을 일주일 정도 지나서 1월 5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출산하였고, 작은 타운에서는 새해에 아기가 태어나지 않아 계속 기다렸다면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잘못 들었나? 5일 낮에 낳은 아기가 찾아기라고? 인터뷰?'... 그렇게 신문에 실리고 상인회에서 주시는 선물도 많이 받으

며, 시아버님께서 새로운 Job을 얻으셨고 둘째를 보시려고 미국에 오셔서 안아 주시며 좋아하셨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고, 성경공부를 하며 알게 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 초대하셔서 차도 주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어 주시고 아이들도 돌봐주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셨고, 사랑으로 섬겨 주셨는데 그 사랑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함께 처음으로 교회에 간 날,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 그 후에 찬양 중에, 말씀 중에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뉴저지 연합장로교회에서 작년에 가정교회 집회로 오신 김인기 목사님 부부를 만났고,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산호세에 작은 벤처를 맡으며 오게 되었습니다. 작은 회사라 visitor로 나와서 H1 비자를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해, 둘째의 21번째 생일이 지나서 부모 초청이 가능했고, 그 아이의 시민권이 6개월 만에 영주권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때 태어난 둘째는 올해 2월에 결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심과 인자가 그 아이의 삶을 인도해 기심을 뽐니다.

산호세로 오며 교회를 찾고 있다고 하니, 김인기 목사님께서 손원배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가정교회인 임마누엘 장로교회를 섬기며 평생에 사랑의 빛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부부에게 우리 일생의 가장 귀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섬길 수 있도록 목자의 가정으로 불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봉사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많은 분들께 사랑에 빛진 자로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지? 사랑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글 정구옥 권사 (산호세 평원 요르단 목장, 새가족 2부, 화요 여성예배 큐티 리더)



네팔 땅에 은혜의 단비가

먼저 네팔 단기선교를 은혜 속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게 있었던 모든 일을 돌아볼 때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과 배려가 숨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고 궁극적으로는 네팔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한 그분의 사랑임을 확신합니다.

를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네팔 출발 일주일 전 취업을 허락 하셨습니다. 그 몇 개월 동안 아내도 교통사고로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많은 분을 통해 우리 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구나 하고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16년에 네팔과 인도 두 선교지를 다녀오기로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우선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저에 대한 초대였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갔었던 인도 선교지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함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았기에 또 한 번 설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도 잠시 단기 선교 신청을 하고 나서 열흘 후에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섰지만, 주님과 약속은 지켜야 했고 기도으로써 제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비록 통장의 잔액은 계속 줄어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성품으로 우리 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저는 어느 날 네팔 선교 가기 전에 취직될 거라고 가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선포

제가 선교 가기 전 가슴에 와 닿았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사 61:1) 우연히 발견한 이 말씀이 가슴에 너무 와 닿았고, 이번 선교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 이 내용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읽어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이 말씀 붙들고, 9월 21일 드디어 네팔의 영혼들을 위해 팀원들과 함께 달려갔습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그 남쪽에 있는 도시 헤토다, 심하



게 멀거거리는 비포장도로를 차에 몸을 맡기며 5시간 넘게 갔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차 타는 것도 선교, 먹는 것도 선교, 화장실 가는 것도 선교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김경수 선교사님을 통해 얘기만 들었던 예수 문화학교는 두 곳 모두 그곳 빈민촌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네팔 아이들, 아시아와 비슷한 외모에 더욱 친근했던 아이들은 다들 너무 귀엽고 천진난만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으로부터 이 나라 아이들, 청년들의 실상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예수 문화학교는 지금은 밝게 웃고 있지만, 장래가 암담한 하나님의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성적으로 바르게 자라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선교팀은 짧은 시간이나마, 그들과 함께 지내며 서로 알게 되고 친해졌습니다. 아직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며 깔깔대며 웃지만 그들의 인생 앞에 놓일 고통과 좌절을 생각하니 먼저 복음을 받고 잘 사는 나라에서 살게 된 자로서 큰 빛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자신은 성경 말씀대로 네팔의 포로된 자, 놀린 자들의 인생을 펴주기 위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NGO가 네팔을 경제적으로 도와왔지만, 네팔을 일으키는 데 실

패하였고, 일으킬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성 노예 예방 사역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이들이 사창가에 팔려가 인생의 가장 구겨진 모습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미리 알려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하신 일이었습니다. 빈민촌의 네팔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먹으며 그들의 미래를 걱정해 주는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선교지에 얼마나 큰 열정과 사랑을 쏟아야 하는지 보여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보여 주셨던 그 선교지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품으신 그 마음으로 네팔을 향해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리며 함께 간 팀원들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교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글 이건영 (산호세 평원 요르단 목장, 성경학교부 섬김팀장)

은혜의 순간들

안녕하세요, 2016년에 인도 단기선교를 다녀온 이준입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했던 2년의 미국파견 근무를 나오면서 '제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 저의 소명에 대해서 고민할때쯤, 송오빈 목자님이 인도 단기선교를 같이 가자고 권하셨습니다. 제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알게 될 수도 있고, 살아가신 하나님의 역사 하심을 직접 보게 될 기회로 생각해서 선교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선교를 열심히 준비하였지만, 고백컨데 순수한 마음으로 선교를 준비하지 못하고, 선교를 통해서 더 큰 은혜 받을 것과,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더 GREAT 해진 저를 상상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기대는 선교 첫날부터 깨졌습니다. 제 짐이 SAN FRANCISCO 공항에서 인도행 비행기에 실리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100번 이상 비행기를 탔지만 짐을 잃어버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조짐이 심상치 않았습니까. 최종 선교지인 AP(ANDHRA PRADESH)에 도착해서는 저희 조만 선교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같은 조 C양의 여권이 분실되는 일이 있었던 거죠. 호텔에서 선교사님과 대책을 논의할 때 '이런 곳에서는 급행료라는 것이 있다. 급행료를 내고라도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지에서 첫날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하려 와서 '급행.료. 라니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선교하려 온 제가 한심했습니다. 선교만 오면 매순간이 은혜의 순간이고 기적들로 가득 채워질 거라 상상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둘째 날이 되어서야 저희 조는 처음으로 선교지에 가서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전해 듣는 그 인도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이 어설피



프다면 어설피 복음과 간증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은, 돌이켜보면 성령님이 직접 역사하신 은혜의 현장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그들의 믿음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가? 그들이 우리가 전한 예수를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는 건가? 그들의 믿음과 저의 믿음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밤늦게 호텔로 돌아왔고 현지공항에 제 짐이 도착했다고 하여 운전기사, 현지 사역자와 함께 가서 짐을 찾았고 또다시 괴로운 밤이 지나갔습니다.

셋째날도 우리 L집사님과 L집사님의 딸, C양은 아직도 뉴델리로 가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예정된 출국 날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니 출국 날짜를 연기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니, 이분들이 여기서 왜 이러나? 빨리 가서 여권과 VISA 문제를 해결해야 할 터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사역지로 향하는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 안에서 하는 기도가 기도일 리 없고 찬양이 찬양일 리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은혜 받는 척 하였으나 실은 몸과 마음이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점심 식사 때 C양이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기회가 되면 다시 인도선교를 오고 싶다" 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밥을 먹었으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L집사님과 C양 앞에 미안하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

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가 같이한 마지막 사역지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김사인 장로님이 치유의 기도를 한 후, 다리가 불편하여 잘 걷지 못하던 여인이 울며 앞으로 나와서 더이상 아프지 않다고 하며 장로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목격하고 싶었던 기적의 현상이었지만, 제 몸과 마음은 물에 젖은 솜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선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했습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십사 기도하였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과 가정교회를 세우기로 한 평안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호텔에 돌아와서 송오빈 목자님이 어제 우리 운전기사분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 잃어버린 짐을 찾으러 밤늦게 저와 공항에 다녀오다 현지사역자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족들에게도 전하고 싶다 하여 오늘 두 시간 넘게 달려 그분의 부

모와 누이의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분의 가족들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C양과 L집사님은 비자와 여권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선교팀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더 GREAT 해지려는 저의 음모는 더 작아진 저로 되돌아왔습니다. 주님은 제가 알던 진실, 정상이라는 관념 안에서 그림 그렸던 그런 은혜가 아니라, 잃어버린 가방, 잃어버린 여권, 순수한 믿음, 팀원들의 헌신과 배려, 그리고 성령의 역사 하심,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로 역사하시고 시험하시며 제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인도의 맑은 영혼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있는 것과, 단지 그곳에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2017년 인도 단기선교에 더 많은 분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글 이준 (북부평원 인도AP목장, 단기선교 기획 홍보팀)



행복했던 성경 일독 여행

2016년 전교인 성경 통독의 해를 맞아 채용석 장로님이 섬기셨던 산호세 4지역의 50~60대 성경 일독 소그룹 리더로 섬긴 채재인입니다.

성경 일독을 통해 한 그룹이 되면서 매 주일 예배 후 함께 식사하고 그룹 방에 말씀을 올리며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갔습니다. 한 분은 매일 새벽 5시에 말씀을 올리시는데 손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기 전에는 밥도 먹지 말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꼭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또 한 분은 매일 영어로 말씀을 올려 주시는데 저는 아직도 한글이 더 편해서 이해가 잘 안될 때는 다시 한글 성경을 읽으며 또 다른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한 가정은 보통 일을 끝내고 집에 오시면 먼저 걸으시고 난 후 성경을 읽으시는데 제가 기다린다고 성경부터 읽고 걸으러 가십니다. 또 늦으실 경우에는 기다리지 말고 자라고 전화까지 하셔서 배려해 주시는 그 마음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함께 읽으며 제가 한 일이라고는 카톡에 말씀을 올리시면 스마일, 하트, 손뼉치기, 엄지척 등... 어느 날은 여섯 분이 주르륵 한꺼번에 다 올리시면 100점을 올려 드리죠. 그런데 그게 많이 격려가 되셨다고 합니다. 카톡은 소리 나지 않게 줄여서 언제든지 편리한 시간에 올릴 수 있어서 서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룹원 모두 기쁘고 즐겁게 성경 말씀을 읽느라 2016년이 어느 때보다 더 빨리 아쉽게 지나갔습니다.

저도 솔직히 서둘러 장을 넘기거나 읽고 난 후에도 무엇을 읽었는지 생각이 안나 다시 읽곤 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전 4:9-10) 이 말씀이 새롭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같은 말씀을 읽고 또 새롭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새벽부터 올리시는 말씀들을 읽으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하고 깨닫기 위해 집중해서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카톡에 올리고 나면 그날 종일 그 말씀이 머릿 속에 남아 묵상할 수 있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여름에는 저희 그룹에서 두 분이나 선교를 다녀오셨습니다. 선교 여행 중 wifi가 있는 곳에서는 꼭 말씀과 사역 현장의 사진도 함께 올려 주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사랑하신다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선교 가실 때 "다녀오겠습니다"하고 올리시면 서로 격려의 글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그룹원들께 감사드리며, 지난 해 우리 교회에 성경 일독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기쁘고 즐겁게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글 채재인 권사 (북부 평원, 1부 시온 찬양대)

아버지 품 안에서 난

“내가 주를 알기도 전에 그 사랑은 나를 아셨네
사는 동안 내 할 일은 그 사랑 알아 가는 것
내 아버지 창조 주님 그 지혜는 완전하시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이름 부르셨네
나 서두르지 않고 많은 것 바라지 않고
내게 주신 오늘을 살며 이 순간을 예배하리
내가 했던 일을 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난 더 바랄 것 없네”

(아버지 품 안에서 난 _ 어노인팅)

2017년 새해가 지나자마자 “나의 노래”라는 찬양 간증 원고 청탁은 저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 생각했기에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순종하며 적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제 모습을 매우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어 다행이지요. 어린 나이에 이전의 저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활달하고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우르고 그룹에서 항상 튀었기에 인간적으로 보면 참 관참은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누구보다 깎듯하게, 남들이 봐도 흠잡을 곳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항상 남들에게 잘 보이려 하는 중압감, 조용히 있고 싶었지만 튀어야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갈망과 욕심, 기존의 이미지 때문에 사라져 버린 진정한 자

신의 내면, 지기 싫어하고 또 낮은 자존감을 숨기려 과시로 포장되었던 자신감,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숨 막히게 저를 옥아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저는 말도 적어지고 나서지 않으며 친구도 적어졌습니다. 제 본연의 모습을 본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자신을 정당화시켰던 모든 인간적 강박을 벗어버리자, 저는 아무것도 아닌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실망과 자괴감을 넘어 주님이 저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더이상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되기에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었고, 잘 보이기 위에 무리하게 견디고 거짓을 말할 필요도 없었고, 그것으로 인해 무너져 내리는 자존감을 붙잡고 울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진정한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 잘 아셔서 평범한 사람이 저를 전도하면 가치없이 걷어 찰 것을 미리 아시고 제 남편 같은 질기고, 어처구니 없이 넓고 깊은 사람을 통해 저를 이끄셨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잘 통하지만 물과 불같고 즐겁지만 폭발하는 다이아나이트 같은 커플이었습니다. 서로 눈물로 기도하며 믿어지지 않을 땐 믿고 싶다고 울부짖었고, 변화되지 못할 땐 변화되기를 울부짖었던, 그 수많은 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그렇게 울고 부



르짖으며 구하고 매달렸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별 볼 일 없는 인생일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 제 인생은 정말 180도 전환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또 앞으로도 무궁히 진화할 것임을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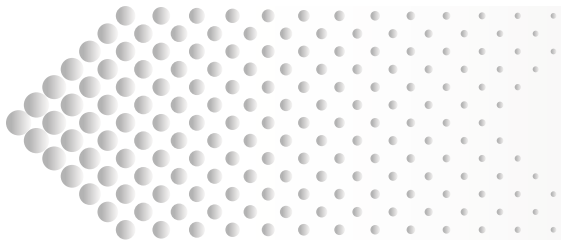
제 찬양의 고백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깎이고 다듬어져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글도 사실 너무 부끄럽지만 지금의 저를 만드시고 또 앞으로의 저를 만드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구원의 힘이 아니고서는 저는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름 끼치게 놀랍고 위대한 일인지 저는 알고 있으며 또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 부르시는 은혜를 따라
사람들의 시선보다 내 주님 원하신 대로
내가 거기 있지 않아도 내가 주인 되지 않아도
내 목을 감당한다면 주님은 다 아시네
내 눈이 놀지 않고 내 마음이 교만치 않고 어린아이
엄마의 품에 잠든 그 모습처럼
더 나은 내가 되기보다 이대로 주님 따라가리
내 주님과 함께 있는 한 두려울 것 없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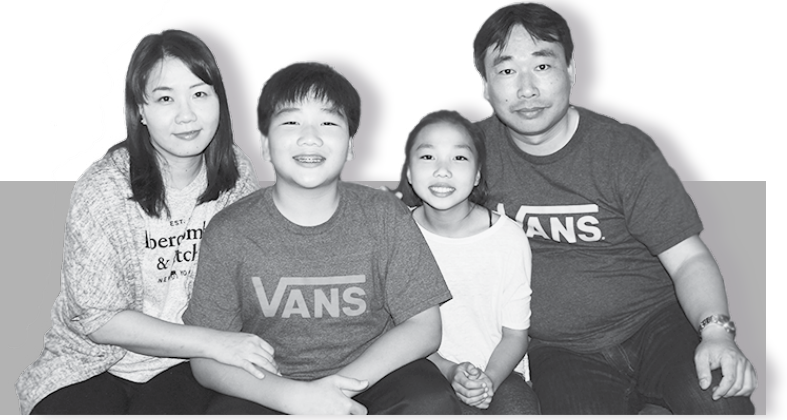
(아버지 품 안에서 난 _ 어노인팅)

사람들이 놀랄만한 기적 같은 일이 제게는 없을지 모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통해서도 알게 되듯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일확천금이 쏟아지더라’는 고백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게 있어서 지금의 삶은 한 남자의 아내이며 두 어여쁜 아이들의 어머니자 저보다 더 멋진 우리 사랑하는 목장식구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제 삶은 정말이지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것입니다. 제 인생의 펜을 쥐여주시고 한 구절 한 구절 지금도 써내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찬양의 고백을 올립니다.

글 안은선 (산호세 평원, 북한 평안목장 부목자, 2부 찬양팀, 수요 찬양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너무나도 분명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후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뤘으니 혼자 삶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으로 나누어지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의 의지와 목표가 제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의지의 한국인'이라 놀리듯 불려도 그것 이외에 저를 이끄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자각하지 못한 채 살다가 26살이 되던 해,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간 교회에서 친구는 자신이 봉사하는 동안 기다리라며 주일 예배 동안 예배당에 저를 앉혀 놓았습니다. 전도하겠다는 친구의 속셈을 눈치 못 챈 것은 아니었지만, 저를 위한답시고 애쓰는 친구를 생각해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서 낯선 예배를 구경하였습니다. 그렇게 설교 말씀을 듣던 중 "당신이 알지 못하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셨습니다." 라는 목사님 말씀이 가슴에 꽂히며 하나님이 함께하셨을 것 같은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갔습니다. 저는 그날 친구의 교회에서 혼자 앉아 평평 울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집에서 한 시간 반 거리인 그 친구의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고 청년부 회장이었던 남편을 만나 함께 말씀을 배우며 교제를 시작하던 중 남편은 캐나다로 이민을 준비하고 그곳에서 공부하고 싶어했습니다. 총각이라 철없는 생각을 한다고 여기고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라도

생기면 생각이 바뀌겠지 했으나 인터뷰가 면제되면서 영주권이 몇 개월 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원치는 않았으나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져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중, 제 입으로 '돕는 자'가 되겠다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캐나다행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과 그곳에서 제가 할 일은 돕는 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어렵듯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 8개월 만에 양손에 이민 가방을 하나씩 들고 낯선 캐나다 땅에 도착했습니다.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지 감히 계획도 세울 수 없었던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위해 토플공부와 GRE를 준비하던 남편이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다니던 저에게 특정 숫자의 토플 점수를 말하며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성적표가 도착했는데 정확히 기도한 숫자가 나왔고 성적표 위에 모든 숫자가 신기하게도 같은 숫자만 있었습니다. 이 사소한 기적은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셨고 앞길에 함께 하신다는 확증 같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좋은 시험 점수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대학원에 불합격되었고 좌절되고 막막함에 다른 길을 알아볼까 인간적인 생각도 하였으나 기도 중 느껴지는 바는 공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같아 학부 공부부터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큰 아이를 낳은 직후여서 수입도 없이 학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막막한 상

황이었지만, 신기하게도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갖은 방법으로 먹이시고 누리게 하셔서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꾸러가시는 것을 경험하였기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석사 과정을 마친 2008년에 서브 프라이머리 물가지 사태의 여파로 모든 기업이 아무도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공부를 마치면 미국 대기업에 좋은 조건으로 취직될 거란 희망이 있었는데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절망스러웠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경험상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지 않으신다는 배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 남편은 작은 회사에 입사했고 한 번의 이직을 거쳐 그때 계획대로 지금은 미국에 좋은 조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가끔 남편과 대화할 때면 왜 하나님은 돌아서 오게 하셨을까? 자문했습니다. 그 돌아오는 몇 년의 시간 중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시 37: 7)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했고 금방 이루어질 것 같

은데 현실은 항상 반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현실과 믿음이 싸우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 가정은 기다리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시와 그림의 찬양 중 "말씀이라는 나무에 기도의 물을 주리라..."는 찬양 가사는 기다리는 좌절의 시간 동안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었다 놓기를 반복하고, 믿음과 현실이 싸우며 기도하는 시간이 지나, 말씀이 기도로 열매 맺는 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승리한 것 같아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이민온 지 십 년이 훌쩍 지나니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이민 가서 무엇이 제일 좋으냐고 묻곤 합니다. 이민 와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뤄놓은 학벌과 배경, 가족이나 물질을 의지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하나하나 이뤄가는 동안 하나님은 늘 우리 가정과 함께 계셨고 현실적 문제들을 주님을 의지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의지해 기다리는 법과, 응답되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방법과 응답받은 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음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글 민혜선 (산호세 평원 일본CBI 목장)



목장에서 만드는 신앙의 연결고리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Sarah Chang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CBI 목장의 한진희 부목자입니다. 저희는 산호세 평원으로 Cambrian 지역에 있으며, 올해 목장 개편을 통해 기존 목원 3가정과 새로 합류하신 2가정, 그리고 저희 한광선 목사 가정까지 모두 6가정이 매주 목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목장과 별다른 것 없지만, 목장을 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통해 주님께서 저희 목장에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목장 초기에 목장 아이들의 연령 폭이 넓어 어느 나이에 맞추어, 어떻게 아이들을 care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목사님께서 목장은 지금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새 신자나 VIP를 중심으로 목장을 인도하라는 말씀을 따라 유년부 아이들 눈높이로, 모일 때 마다 간단하게나마 아이들도 꼭 예배를 드렸고, Jesus Calling, Daily Bread 등을 통해 그날그날 주시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목장 모임마다 어른들과 아이들이 늘 따로국밥처럼 서로 다른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리던 중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교회 봉사를 찾자는 의견이 나와 매달 첫째 주 화요일, 저희 교회가 섬기는 밀알 선교단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우리 밀알 장애우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저녁 식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아이들은 함께 놀면서 그분들과 삶을 나누는 것은 아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인 저희에게도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경험하게 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눈에 생생합니다. 목장식구들과 밀알 식구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특송을 드렸던 그날 밀알 예배가...

3년 동안 밀알 선교단 봉사를 하고 새로운 봉사를 해보자는 의견이 나와 한 달에 두 번, 두번째와 네 번째 토요일 아침, 무숙자 봉사를 아이들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잠이 많은 사춘기 아이들에게 쉽지 않은 봉사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음식도 만들고 배식도 하며 추수 감사절엔 아이들이 모은 돈으로 무숙자들을 위한 선물도 사고 목장에서 옹기종기 둘러앉아 선물을 포장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미술을 전공하신 엄마들이 아이들과 한달동안 성경구절을 적은 손 카드를 직접 그리고, 자르고 부치며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받아 보는 손 카드를 좋아하시던 무숙자 여러분이 작은 손으로 카드를 나눠 주는 우리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환한 미소를 보내 주신 것이 너무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목장에서 이런저런 봉사들을 아이들과 했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이렇게 귀한 나눔 안에서도 힘들고 그만두고 싶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목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면 억지로 예배 자리에 나와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밀알 선교단 봉사에 와서도 어느 땐 물과 기름처럼 장애우분들과 섞이지 못하고 걸출 때도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무숙자 봉사에 나온 아이들 중엔 소가 도살장에 끌려 나오듯 나눔의 의미나 봉사의 마음이 아닌 부모님의 권유에 못 이겨 끌려 나온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예배나 봉사가 이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저 혼자 고민 할 때도 많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이런 시간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 두 세대, 부모와 자녀의 신앙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희 목장에선 벌써 대학에 간 자녀들도 있고, 앞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의 품을 떠날 아이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아이들에게 목장은 부모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들을 힘들지만 함께했던 귀한 시간이길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과 함께했던 신앙생활이 그들이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고 행동해야 할 시간에 주님 곁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작은 버팀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장을 통해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의 끈이 되어 주고 싶은 저희 목장에 새로운 소망이며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혼자서는 웬지 두렵고 떨리지만, 목장 식구들이 같이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목원들이 단기선교에 관

심이 있어 매년 단기 선교를 가지는 의견을 내놓지만 바쁜 직장생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오는 학교 공부의 부담감, 그리고 늘 하고 있는 아이들의 바쁜 일정 때문에 과감하게 결심하지 못하고 늘 말만 무성했던 저희 목장에 지난 12월 아빠를 따라 인도 단기선교를 다녀온 7학년 자녀가 단기선교를 다녀와 목장 아이들에게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하나님이 선교지에서 하신 일들을 간증하며 다음에 또 단기선교를 가겠다고, 아니 가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 아이들 마음에 새로운 도전이 생길 듯 했습니다.

선교지에서만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선교를 다녀오는 것이 믿음의 척도 또한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모양의 선교이든 선교를 가기 전 많은 시간 훈련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우리 아이들은 조금씩 자기를 주님께 내어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시간, 물질,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그들의 순종을 통해 그들을 사용하시며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 현장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견고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많은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목장에서 함께 힘써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그런 주님을 함께 공유한다면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작은 믿음의 버팀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제가 이런 글을 쓰면서 마음에 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순종할 때 나와 늘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이번 글을 통해 임마누엘 각 목장과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길 기도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글 한진희 (산호세 평원 일본 CBI 목장 부목자, 1부 시은 찬양대, 부흥/특별집회 섬김팀장)

날아가는 새

평생 땅에서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들은 무슨 기분일까? 나는 이 하늘에 있어도 땅을 바라 볼 수밖에 없는 걸까? 나의 자유를 허락하는 이 커다란 날개는 파닥대는 날개와 달리 마치 바람에 날리는 연처럼 나를 하늘 높이 떠 있게 해준다. 햇살을 맞으면서 이 파란 하늘에 떠다니는 나는 내 깃털 속에 솔솔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 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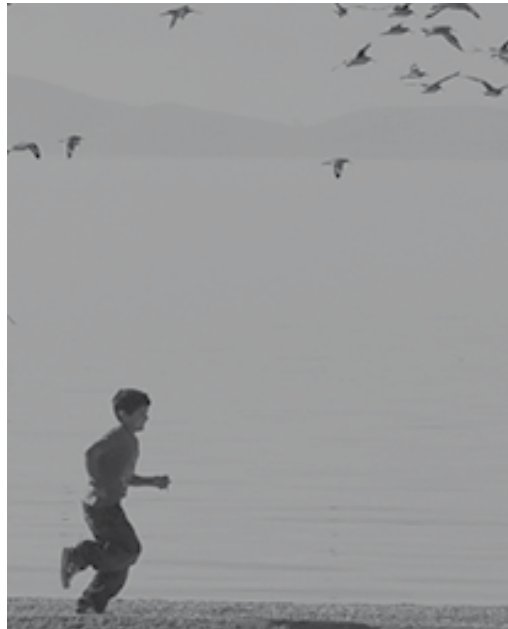
사람들은 매일 생각하겠지 나도 저런 새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밤에는 나뭇의 공포로 몰아갈 수 있는 짐승을 피해 나의 작은 둥지로 가야 해.

나는 그런 공포에 빠져 있다가 어느새 잠이 들지. 나는 사람과는 달라서 따뜻하고 폭신한 침대와 깃털처럼 부드러운 베개는 커녕 뾰족하고 뾰뻗한 지푸라기 둥지에서 밤을 새고 말지. 살기 위해서는 애벌레와 곤충을 잡으면서 하루 종일 나무의 초록색 앞에 숨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어느새 나는 또 땅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내려다본다. 그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웃고 지나간다. 어쩔 땐 과자와 빵조각을 주며 나한테 다가오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부러움을 휘날려 지겨운 파란 하늘로 가거나 지긋지긋한 나무로 가서 또 사람을 내려본다.



나는 아직 어린 새지만 내년 봄에는 짝을 찾으러 떠나야 한다. 외로운 가을과 칼날 같은 겨울이 지나자 나는 나의 짝을 찾으러 또 하늘로 날아간다. 내가 사람이라면 예쁜 하얀 깃털과 까만 깃털을 입은 나의 짝의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

나는 이제 새로운 둥지를 만들고 알을 품을 때가 됐다. 나의 짝은 쉬지 않고 나에게 먹이를 주고 나는 알을 품어야 하는 뉘이어서 할 수 없이 이 지루함에 빠져있다. 어느새



내 알은 예쁜 아기 새가 되고 나는 이 새들을 가르쳐야 한다. 처음에는 낯설고 서툰 날갯짓을 하며 겨우 하늘에 떠 있는 나의 새끼들. 곧 하늘로 솟아올라 나의 둥지는 나와 짝만 남았다. 나의 짝은 약해졌다. 인사도 없이 나의 짝은 떠나가고 나는 밤에 또 혼자가 됐다.

아침이 되면 사람이 보이고 나는 나무에 앉아 있다. 사람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아침 노래를 부른다. 사람들은 행복이 넘쳐나 보인다. 나의 괴로움이 담긴 노래에 웃어

준다. 나는 더 이상 파란 하늘로 가기 싫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지 않고 이 나무에서 울고 있다. 언젠가 새의 서러움을 사람은 알아줄까? 나는 하다못해 눈을 감는다. 갑자기 새 소리에 폭신한 침대에서 일어난다. 밖에 있는 새를 보며 나는 얼굴에 미소를 짓는다.

글 조유빈 (중급 3반, 2016년 북가주 백일장 금상)



생명 공동체, 비전 청년부



한어 청년부를 섬기는 이산돌 목사입니다. 한어 청년부는 임마누엘의 한 지체로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자녀들이며, 순수하고 열정적인 푸른 신앙으로 우리 교회의 여러 부서에서 아름답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사랑호를 통해 교회의 희망이며 다음 세대의 영적 주역인 비전 청년부에 대해 전반적인 소개를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요즘 많은 교회에서 청년부를 교육기관에 소속시키거나 장년과는 구별된 구조로 여깁니다. 이민 교회 특성상 한어 청년부는 교회에 등록된 어른들의 자녀가 아닌 유학을 오거나 직장인으로 인해 타주에서 온 청년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임마누엘 청년부를 섬기면서 느낀 것은 우리 교회에서 한어 청년부를 교육부에 국한시키지 않고 장년과 동일한 공동체로 여기는 점입니다. 그 예로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청년 예배'가 아닌 '4부 예배'로 불리며 본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이 청년 공동체가 교회의 미래임을 믿으시고 관심과 기도로 늘 중보하고 계신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청년부를 찾기 어렵고, 큰 교회들조차 장년 규모와 비례해 통계적으로 맞지 않는 소규모 모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그만큼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기회와 환경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청년들이 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과 경배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으로 복된 교회이며 미래가 있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청년부는 베이지역에서 학업과 취업을 하는 젊은 세대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으로 믿고 따르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청년부의 비전은 비전이 없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대부분 청년의 때 많은 꿈과 고민과, 확실하지 않은 불안정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학업도 진로도 취업도 결혼도 다 정확하게 정착되지 않고, 늘 준비하고,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기에 고민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년의 때에 오직 살아계신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한번 맡긴다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그 확실한 경험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훌륭한 사람, 훌륭한 직장, 훌륭한 가정, 인정받는 성공자

의 꿈을 비전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자신의 계획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섭리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갖도록 기도하며, 사용되는 것에 기뻐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 더욱 기뻐하는 청년부가 되는 것이 청년부의 비전입니다.

청년예배는 주일 예배와 금요 홀리파이어, 이렇게 두 번 드립니다. 주일 4부 예배는 2시에 본당에서 드려지는데 찬양으로 30분간 드리고, 대표 기도자의 기도와 마하나임 찬양대의 찬양, 그리고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말씀 선포 후에는 말씀을 가지고 20분간 합심 기도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사역자와 찬양 인도자, 예배를 섬기는 임원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중보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신의 고백을 드리며, 결단과 다짐의 시간을 갖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4부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 중에는 교회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체들, 모태신앙이지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지체들, 한국 어보다 영어가 편한 지체들이 있어서 말씀을 전할 때 모든 것을 안다는 전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간결하면서도 굵은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청년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청년부라는 공동된 상황과 환경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쁨 부으신 각자의 공동체에 특별한 상황과 환경도 있습니다. 임마누엘 청년부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체험하는 공동체 되기를 사모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부를 위해 사용된 후, 시간이 흘러 번아웃되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청년부를 위해 청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라는 영혼을 위해 청년부가 존재해야 하며, 저와 사역자들도 청년부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청년들의 고민과 아픔이 치유되고 위로받고 회복되

기 위해 청년부가 있어야 하며, 단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그들이 교회 안과 교회 밖이 일치되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양분을 공급받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맨 처음 청년부를 맡았을 때는 나이 차이와 직장인과 학생으로 뚜렷이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역하면서 시간을 두고 나누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연합의 마음을 주셔서 청년들을 나이와 직장인과 학생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가 되어 오직 한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길 수 있는 공동체로 다지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가지 리더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팀 사역으로 회장, 부회장, 찬양팀, 재정팀, 문서팀, 친교팀, 예배팀, 새가족팀으로 청년부 모임과 행사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섬기는 리더들로 조직되어 있고, 11명의 목자들이 목원을 이끌며 매주 예배 후 성경공부와 각 목원들을 섬기며 나누는 가운데 청년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리더들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캠퍼스 사역팀과 직장 사역팀을 만들어 베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과 진리의 자유를 선포하는 공동체로서 오직 하나님의 유익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글 이산돌 목사 (청년 평원, 한어 청년부, 예배 위원회 담당)

비·청을 섬기는 사람들



청년 섬김부 중보팀(이하 중보팀)의 막내이자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대아입니다. 지면을 통해 중보팀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껏 길러주신 부모님의 품을 떠나 학업이나 진로, 직장, 배우자의 선택 등등... 삶의 여러 큰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청년의 시기는 매우 중요하고도 복잡하며 혼란한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 때문에 스스로 비하하며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날 사랑하시고 끝까지 쫓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귀중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하나님, 나와 전혀 상관없던 예수님이 내 삶과 직접 연결되는 체험을 하기도 하며, 세상과 가정의 부조리에 분노하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내리기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미국에 여학연수 차 단신으로 미국에 왔던, 무지하고 실수 투성이던 저에게 귀한 아내와 세 명의 자녀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때, 저의 청년의 때가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했는지, 그리고 그런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던 그 시기에, 조건 없이 만나 주시고, 먹여 주시고, 고민을 들어주시고, 함께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청년의 때에 받았던 그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 물심양면과 영으로 청년들을 섬기실 분들이 헌신하는 모임이 바로 우리 중보팀입니다. 우리 중보팀은 장흥 장로님께서 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에녹 청년 위원회 소속입니다. 청년 섬김부 부장으로 섬겨 주시는 박준희 집사님과 열정으로 헌신된 팀원들이 이산돌 목사님께서 목양하시는 비전 청년부(비·청)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 7시 20분에 모든 팀원이 함께 모여 비전 청년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매월 진행되는 각종 행사를 위한 회의도 하며 비전 청년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서 섬길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던 청년 시절이 기억나십니까? 그 시절에 처음, 혹은 다시 만난 주님 때문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그 감격의 순간이 떠오르십니까? 다른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 가던 기쁨의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을 위해 순수한 열정으로 교회를 섬겼던 가슴 벅찬 시간이 생각나십니까?

그 때 여러분이 걸으셨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는 비전 청년부 형제 자매들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누구보다 순수하게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헌신된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글 김대아 (산호세 평원 요르단 목장, 청년 섬김부 중보팀장)



우슬초

이스라엘의 마요람(에조브)

성경에 나오는 우슬초(牛膝草)는 관절염에 효과가 큰 한약재로 많이 알려진 우슬초와 이름은 같지만 기원 식물이 전혀 다른 식물이며, 잘못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약재로 쓰이는 우슬은 소의 무릎처럼 생겼다고 하여 우슬(牛膝)이라고 이름 붙여졌는데 이는 비름과에 속하는 다년생 풀의 뿌리이고(Achyranthes japonica(Miquel)Nakai), 성경에 나오는 우슬초는 꿀풀과의 식물로 (Majorana syriaca (L.) Kostel) 완전히 다른 식물입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쇠무릎은 독(毒)이 없다. 한습위비(寒濕痿痺)로 무릎이 아파서 구부러다 폼다 하지 못하는 것과 성기능장애, 노인이 소변을 참지 못하는데, 주로 쓴다. 골수(骨髓)를 채우고, 음기(陰氣)를 좋게 하며, 머리카락이 세는 것을 멎게 하고, 허리와 등뼈가 아픈 것을 치료하며, 월경(月經)을 잘 통(通)하게도 한다.’ 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주로 관절염에 많이 사용됩니다. (性平味



한국의 우슬(쇠무릎)

苦酸無毒 主寒濕痿痺 膝痛不可屈伸 男子陰消 老人失尿 填骨髓利陰氣 止髮白起陰痿 療腰脊痛 墮胎通月經

우슬초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출애굽 할 때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뿌릴 때 우슬초 가지에 적서 뿌리라고 하십니다(출 12:22). 이스라엘의 우슬초는 히브리어로 'אֶזְבוֹב' 또는 'מָרְרֹם(마요람)' 이라고 불립니다. 유월절 시기인 3월 말~4월 초에는 아직 꽃이 피기 전이므로 잔털이 많고 줄기도 부드러워 피를 묻혀 뿌리기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유대인 가정들이 일 년 동안 양념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우슬초(마요람)를 수확하는 계절이므로 집집마다 우슬초 묶음들이 쌓여 있을 때이기도 합니다.¹⁾ 당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식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 나단 선지자에게 그의 죄에 대해 지적받은 후 지은 시 51:7에도 우슬초로 정결케 하여 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한, 레위기에서는 한센병(문둥병) 환자가 치유된 경우 제사장에게서 완치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하는데, 치유가 확인되었을 때 한센병이 치유되었다는 선언과 동시에 그 환자가 살았던 주택도 정결케 되었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의 주택을 정결케 하는 예식 중에 새의 피를 집에 뿌리는데 이때에도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 가지에 새의 피를 적서 집에 일곱 번 뿌리라고 하였습니다(레 14: 50-53).

우슬초에 다른 기록으로는 솔로몬의 지혜와 학식에 관해 이야기할 때 나옵니다. 솔로몬이 3,000개의 금언을 말하였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으며, 레바논의 귀한 백향목으로부터 돌담에서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식물을 논하고 동물과 새와 뱀과 물고기까지 연구한 훌륭한 학자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왕상 4:33). 이 기술에 의하면 우슬초는 이스라엘 전역의 돌담길에서조차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생활에 밀접한 식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도 우슬초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유명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고 하시자 신 포도주를 해면에 적서 우슬초 가지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고 합니다(요19:29). 이 장면을 마 27:48에서는 갈대에 매달아 드린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우슬초는 약하고 길이가 1m를 넘지 않으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입에 적시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갈대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많다고 합니다.²⁾

현재 실생활에서 마요람은 3~4월에 잎이 무성할 때 수확하여 잎을 빻아서 샐러드에 뿌리거나 고기 누린내를 없애는데도 쓰이고, 잎을 빻은 가루를 소금, 마늘 등과 섞어 향신료로 만들어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줄기는 다발로 묶어서 말려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가루로 만들어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발로 묶어 두면 몇 년간 향기가 보존되기도 하여 방부제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³⁾



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모습

출처 : 1), 2), 3) www.segibak.or.kr
글 이태업 (서부 평원 터키 이고니온 목장 목자, 2부 호산나 찬양대, 의료 상담팀)



이스라엘의 마요람(에조브)



http://www.faithmuskoka.ca/event.aspx?event_id=442204&site_id=11104#.WMIQPhLysUE

드랍 박스(Drop box), 베이비 박스라고도 한다. 아기를 재우거나 보호하는 박스가 아니라, 아기를 버리는 용도의 박스다. 아기가 죽지 않도록 이곳에 버려달라는 아이러니하고 마음 아픈 단어이다.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무언가를 써야 했을 때, 참 막막했다. 인간의 적나라한 죄성을 고스란히 들여다본 느낌이였다. 인간에게 있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의 자식 사랑이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CCTV에 녹화된 사람들은 자기 몸에서 난 갓난아기들을 한밤중에 몰래 내다 버리고 있었다.

한국의 베이비 박스는 주사랑공동체 교회 이종락 목사가 2009년에 처음 설치했다. 어느 추운 겨울 한밤중, 분리수거 쓰레기장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 생

선 박스 속에서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다. 자칫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었던 갓난 아기를 구해 온 이종락 목사는, 부모에게 버려지는 아기가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교회 한 벽면에 아기를 안전하고 따뜻하게 버릴 곳을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베이비 박스를 설치할 때, 주님께 이 벨이 울리는 일이 제발 없기를 기도하셨지만, 실제로는 수년 동안 수백 번의 슬픈 벨 소리가 울렸다.

누군가 벽면의 작은 문을 열고 아기를 박스 안에 넣으면 벨이 울린다. 한밤중에 그 벨 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또 어느 어린 생명이 모질게도 버려지는 것일까? 쿵쾅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급히 뛰어 내려가면 부모는 저만치 도망가고 없다. 혹 달려가 붙들면, 어떤 이는

따라오지 말라고 소리치며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한다. 그러나 그 부모들에게 연민을 느끼기에는 버려지는 아기가 말할 수 없이 가엾다.

아기들은 엄마 혹은 아빠 품에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낯선 박스가 자신을 감싸고 있는 상황이다. 박스의 문이 열리며 웬 낯선 이가 자신을 바라본다. 자지러질 듯 우는 아기도 있고, 숨죽여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는 아기도 있다. 어떤 아기들은 탯줄조차 떼어내지 못한 채 버려졌다. 무엇이 그렇게도 다급했을까? 목사님이 떼어 낸 탯줄이 수백 개라고 한다. 어떤 아기는 배에 수술 자국이 채 아물지도 못한 채로 버려졌다. 태어날 때부터 아파서 버려진 아기도 많다. 아기와 함께 남겨진 편지들에는 죄송하다는 말이 수도 없이 쓰여있다. 잘 부탁한다고도 쓰여있다. 그리고 찾으러 오겠다고 쓴 이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아기들은 경찰서에 신고되고, 구청과 병원에서 일련의 검사를 받은 후 보육원이나 입양기관에 보내어진다. 결국, 아기들은 자신을 낳아 준 친부모와 영영 이별하는 길을 가는 것이다.

베이비박스의 존재에 대한 한국의 사회적 담론은 뜨거운 것 같다. 아동 유기는 법에 명시된 엄연한 죄이다. 그러나 부모에게 아기를 버릴 곳을 만들어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입장이 있다. 맞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 정의와 법이 통하지 않는 견고한 죄성이 있다. 자신의 인생에 방해가 되거나 자신의 무능력을 이유로 혹은 아기가 아프다는 이유로 아기를 쓰레기장에 내다 버릴 수 있는 죄성. 새로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생부, 생모는 아이를 입양 보내더라도, 먼저 출생신고를 해야만 한다. 하지만 미성년 부모들이나 사생아로 아이를 낳은 경우, 자신의 호적에 아기의 흔적을 남기길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전이었다면 입양기관에 보내졌을 아기가 이제는 몰래 버려지는 경우가 늘었다. 그렇다면, 아기를 책임지는 것은 부모 개인의 법적 책임이니 버려지는 아기들

을 외면하는 것은 옳은 것일까? 한 명의 아기라도 구할 수 있다면 베이비 박스는 필요하다는 것이 이종락 목사와 베이비 박스의 존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아기를 버린 부모에게 초점을 맞출 것인가, 버려진 아기에게 초점을 맞출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초점을 맞추어 세상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늘 무엇이 더욱 옳은가를 따지기에 앞서 무엇이 더욱 사랑일까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오는 비를 막아줘야 할 지붕에 구멍이 났을 땐 빗물을 받을 양동이 필요하다. 집안 한가운데 난데없는 양동이는 어울리지도 않을뿐더러 없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구멍 난 지붕 아래로 새는 빗물을 받아내지 않는다면 집안은 온통 망가질 것이다. 베이비 박스는 빗물을 받는 양동이 같은 존재다. 구멍 난 인간의 사랑이 제대로 받아내지 못해서 똑똑 세상 한가운데 던져지는 아기들을 위해 그 자리에 그렇게 덩그러니 놓여있다. 없어져야 마땅하지만, 없어지기 어려운 박스, 그곳은 죄로 구멍 난 우리의 연약한 사랑 사이로 흘러내리는 아픔과 슬픔을 받아내는 곳인 것이다.

글 한연선 (산호세 평원 인도네시아 마나도 목장, 편집팀장, 유치K-1부 교사)



<http://www.readingtoknow.com/2015/09/the-drop-box-by-brian-ivie-and-ted-kluck.html>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 정경진, 김미동 가족

저는 2017년 1월에 등록한 김미동입니다. 저희는 15년 전, 친정 부모님의 가족 초청이 드디어 지난 가을, 인터뷰를 통과하게 되어 이곳 산호세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두 여동생의 가족까지 총 8명이 미국으로 오게 되었고, 산호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남동생의 권유로 임마누엘 장로교회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기로 결정을 하고 다니던 직장, 20여 년을 섬기던 교회, 정들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산호세 날씨가 봄, 여름, 가을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것 같아서 겨울옷은 입고 가는 것으로 하고 이민 가방에는 가을/여름 옷가지만 대충 정리해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영어하고는 담을 쌓은 터라 미국 입국장부터 짐도 많고 이민 입국인자라 여기저기에서 질문이 있을 때마다 신경이 곤두섰고 한집에 사람이 많아도 안되고 신용보증기 없어도 안되는 등등... 입국 후 집을 구하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힘이 들었고 최근에는 운전면허 시험장(DMV)에서도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몇십 년을 운전했었기에 쉽게만 생각했던 운전이었는데, 어이없는 이유로 두 번이나 떨어지고 나서

주변 분들에게 자문을 받고 다음 시험에는 꼭 합격하리라 다짐하며 합격 노하우를 물어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없는 줄 알았던 이곳 날씨에 방심하여 혼이 나고 있는 것인지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쌀쌀해져 온 가족들이 감기에 걸려 심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미국사회 적응 초기에 고전하고 있는데, 박명춘 목사님으로부터 중국 강성목장에 편성이 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정상 첫 모임에는 아쉽게도 참석하지 못하고, 두 번째 모임부터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5가정이 모이는 은혜로운 목장이었습니다.

모든 분이 초면인지라 어색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도 많이 했지만, 목사님과 두 분 장로님 가정, K집사님 등등 저희에게 관심과 배려를 해주셔서 감동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생활 선배로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배려해 주셨고, 식사 후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고 그 이후 은혜의 찬송까지 함께하니 가슴 가득 은혜를 받아 집으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인도 하심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동생이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왜 좋은 교회라고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단숨에 달려오셔서 도움을 주시는 목사님과 무엇이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연락하라고 말씀하시고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챙겨 주시는 목사님들의 사랑에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새 신자로 등록하고 새벽마다 교회와 목장모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인지 않을까 생각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 신자로 아직 교회 사정도 잘 모르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조금씩 적응해

가며 늦었지만 올 한해 성경 일독을 목표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여 임마누엘 장로교회의 가족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임마누엘 장로교회 모든 분, 특히 강성목장 식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감사, 또 감사합니다.

글 김미동 (남부평원 중국 강성목장, 2017년 1월 새가족)



예배와 영혼구원, 양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임마누엘장로교회
KOREAN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www.kepc.org / Tel. 408.263.5100
4435 Fortran Dr. San Jose, CA 95134

발행인	손원배
편찬인	박용갑
기획	김정신
진행	한연선 / 김정신 / 김연희 / 김충만
사진	김홍배 / 윤영숙 / 김범진 / 안중훈 / 박종현 / 윤정미
교정 및 번역	김인영 / 정은하
편집디자인	김유경 / 홍정희 / 한 혁 / 정용익 / 국세은